지역연구회시리즈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澤東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시리즈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 澤 東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1980년대에 브라질 경제는 대외부채, 고인플레이션, 재정불균형 등으로 인해 큰 혼란 속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정부정책의 부적절함과 비일관성이 이같은 혼란을 야기시킨 주요인이었다. 위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브라질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고, 브라질 산업 또한 철저한 국내시장보호정책 속에 안주하면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브라질 산업부문,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강한 성장추세와 함께 산업생산성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과정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1980~90년대 제조업부문에서의 추세와 계절성, 그리고 산업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금번 연구결과 1990년대 브라질 제조업부문에 나타난 강한 성장추세와 생산성향상은 시장개방을 통한 국내시장 경쟁의 도입과 헤알정책(Real Plan)을 통한 경제안정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 례

국문요약 ····· 1

제 1 장 서론 ····· 7

제 2 장 브라질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1980~90년대 ····· 14
1. 1980년대 브라질 경제 및 산업정책: 反정통적 경제정책 ····· 15
가. 1980년대 초반의 정통적 경제정책: 1980~84년 ····· 15
나. 1980년대 중반과 후반의 反정통적 경제정책: 1985~89년 ····· 16
2. 1990년대 브라질 경제 및 산업정책: 정통적 경제정책 ····· 18

제 3 장 브라질 산업부문에서의 변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 22
1. 브라질 경제의 전반적 움직임 ····· 22
2. 브라질 산업부문의 성장과 침체 그리고 계절적 특성 ····· 26
가. 분석모델 ····· 26
나. 성장과 침체 그리고 계절적 특성 ····· 28
3. 브라질 산업부문에서의 구조변화 ····· 47
가. 산업구조 및 생산성 변화 ····· 48
나. 산업생산성과 시장개방 그리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 62

제 4 장 브라질 최근 산업활동: 1997년 이후 ····· 68
1. 거시경제적 환경변화 ····· 68
2. 최근의 산업활동: 거시경제적 환경변화가 미친 영향 ····· 71

제5장 결론: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에서 얻는 시사점, 그리고
한국의 접근방향 ····· 75

참고문헌 ····· 85

부 록 ····· 88

Executive Summary ····· 90

표 차례

<표 3-1> 브라질 연평균 성장률 ····· 24
<표 3-2> 브라질 일인당 국민소득 변천 ····· 25
<표 3-3> 추정된 추세관련계수의 안정성(Chow) 테스트 결과 ····· 29
<표 3-4> 구간별 추세: 제1, 2구간 ····· 30
<표 3-5> 구간별 추세: 제2, 3구간 ····· 33
<표 3-6> 구간별 추세: 제3, 4구간 ····· 35
<표 3-7> 구간별 추세: 제4, 5구간 ····· 37
<표 3-8> 구간별 추세: 제5, 6구간 ····· 40
<표 3-9> 구간별 추세: 제6, 7구간 ····· 42
<표 3-10> 브라질 산업활동에 있어서 추세와 계절성 ····· 45
<표 3-11> 구간별 추세의 지속기간 ····· 46
<표 3-12> 구간별 계절적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록한 달 ····· 47
<표 3-13> 구간별 연평균 성장률 ····· 49
<표 3-14> 브라질 산업구조: 산업부문별 비중(각 연도별 경상가격기준 비중) ····· 51
<표 3-15> 쌍빠울루지역 산업에서 노동생산성 변화: 1980~90년 ····· 54
<표 3-16> 브라질 제조업 성장률 ····· 55
<표 3-17> 브라질 산업구조: 부문별 비중, 연평균(1985년 불변가격 기준) ····· 57
<표 3-18> 브라질 산업: 1990년대 노동생산성(쌍빠울루) ····· 59
<표 3-19> 브라질 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 변화(연평균) ····· 61
<표 3-20> 브라질 산업부문별 명목관세율 변천 ····· 64
<표 4-1> 브라질 산업활동지수(쌍빠울루) ····· 73

그림 차례

<그림 3-1> 브라질 GDP 성장률 ····· 23
<그림 3-2> 브라질 전체산업활동 ····· 25
<그림 3-3> 구간비교: 제1구간에서의 전망치와 제2구간의 관찰치 ····· 31
<그림 3-4> 제1구간과 제2구간의 계절성 비교 ····· 32
<그림 3-5> 구간비교: 제2구간에서의 전망치와 제3구간의 관찰치 ····· 33
<그림 3-6> 제2구간과 제3구간의 계절성 ····· 34
<그림 3-7> 구간비교: 제3구간에서의 전망치와 제4구간의 관찰치 ····· 35
<그림 3-8> 제3구간과 제4구간의 계절성 ····· 36
<그림 3-9> 구간비교: 제4구간에서의 전망치와 제5구간의 관찰치 ····· 38
<그림 3-10> 제4구간과 제5구간의 계절성 ····· 38
<그림 3-11> 구간비교: 제5구간에서의 전망치와 제6구간의 관찰치 ····· 40
<그림 3-12> 제5구간과 제6구간의 계절성 ····· 41
<그림 3-13> 구간비교: 제6구간에서의 전망치와 제7구간의 관찰치 ····· 42
<그림 3-14> 제6구간과 제7구간의 계절성 ····· 43
<그림 3-15> 제1구간에서 제7구간까지 구간별 계절성 비교 ····· 45
<그림 3-16> 국내총투자 ····· 50
<그림 3-17> 총자본형성/GDP ····· 56
<그림 4-1> 전체산업활동지수 ····· 71

제 1 장 서론

브라질에서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초반부터 가속화되면서, 全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1994년 중반 年 5,000%를 넘어선 다음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15년이나 지속된 브라질의 장기적 高인플레이션은 경제학계의 관심거리가 되었으며, 그리고 1994년 헤알계획(Plano Real)을 통해 그와 같은 장기적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 나라에서 산업부문의 활동은 어떻게 변천해왔는가? 그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산업정책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그리고 초인플레이션이 진정된 이후 산업부문의 활동과 산업내부구조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또 1997~98년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 이후 브라질 또한 1999년 초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이 외환위기가 브라질 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브라질 산업활동과 그 내부구조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향후 한국의 브라질에 대한 접근방법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브라질은 한국과 아주 대조되는 경제발전모형을 갖고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수출을 통한 대외지향적 산업화를 추구한 반면, 브라질은 1930년대 이후 수입대체산업화라는 대내지향적인 발전모형을 1980년대까지 지켜왔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발전모형을 선택하게 된 데는 양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기반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넓은 땅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브라질에 비해, 한국은 좁은

땅과 많은 인구, 빈약한 지하자원이라는 중요한 제약조건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으로 하여금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전에 1차산품 수출경제체제를 갖고 있었던 브라질은 이 경제체제로 인해 감수해야 되는 국제교역에서의 불평등한 이익분배, 즉 경제체제적 불리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1930년대 이후 자연스럽게 산업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고, 1950년대 이후에는 강력한 대내지향적 산업경제체제, 즉 수입대체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브라질이 이러한 대내지향적 전략을 채택하는 데는, 종속이론에서 주로 강조해왔던, 발전국과 저발전국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반발도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었겠지만, 한국이 부딪쳐야 했던 제약조건이 없었다는 점, 다시 말해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인들 중 다수가 브라질 국내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가능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전세계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은 산업부문의 확대, 즉 생산능력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생산능력의 지속적인 확대 결과, 1930년대에 대공황이 발생되면서 세계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나오게 되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즉 공급의 확대가 고용을 늘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수요가 창출된다고 하는 세이의 법칙은 공급능력이 부족하였던 이전 시대에는 적절한 이론이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생산능력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그 기본 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20세기에 와서는 공급부족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부족이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 이전처럼 공급측면에서 접근하는, 세이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발전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인 케인즈적 유효수요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 발전국들에서 성장의 주동력은 산업부

문의 팽창에서 나왔고, 생산능력의 확대가 경제발전의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는 늦게 시작하였지만 브라질에서도 선진 산업국가들에서 발생된 것처럼 193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산업부문에서의 생산능력확대였다. 그리고 그 생산능력의 확대과정 또한 산업화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여겨지는, 초기의 소비재 산업에서 중공업 그리고 중화학공업으로 확대되어져 왔다. 이런 점에서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에서 발생되었던 현상, 즉 산업부문의 확대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현상이 시차를 두고 그대로 브라질에서도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1)]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브라질의 수입대체산업화는 소비재산업, 중공업, 중화학공업이라는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왔다. 결국 브라질의 경제성장은 1930년대에 시작되어 1950년대부터 가속화된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해 달성되었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선진국과 같은 정치, 사회적인 기초조건[2)]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후발 산업국으로서 발전전략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즉 상대적으로 노동절약적이면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로 산업생산에 있어서 주로 생산되는 재화들이 다수 일반계층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소수 부유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 구조상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전반에서의

1) 한국 역시 경제성장과정에서 성장의 주동력이 산업화, 생산능력의 확대였다. 하지만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화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이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세계적 사례로 볼 때, 이와 같은 일정한 산업화를 달성한 개발도상국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2차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경제발전모형들이 제시되고 시도되어 왔지만, 결과는 소수의 몇몇 국가들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산업화에 성공하고 있을 뿐, 현재 대부분의 저발전국들이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선진국들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에서 쿠츠네츠는 선진국들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Todaro, 1985, pp. 144～152).

양극 구조,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3] 이 문제는 현재에도 브라질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소수의 부유계층을 위주로 운영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그 발전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이들 소외계층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이 오히려 기존의 잠재력을 잠식하고, 지속적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잉여노동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한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이고, 노동절약적이었다는 점이다 (Morreira, 1995, p. 112). 이로 인해, 산업부문의 확대가 경제전체에 가져올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되었다. 다시 말해, 높은 실업률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고용증대가 가져올 전체소득의 증대, 수요의 확대, 이에 따른 국내시장의 확대라는 파급효과마저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외에도 중요한 점은 이렇게 불평등한 상황에서 교육기회 또한 불평등하여 산업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받은 인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산업부문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교육 받은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는 데 반해, 공급은 제한되었고, 이와는 반대로 교육 받지 않은 인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과잉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한 결과는 당연히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산업부문에 고용된 인력의 임금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는 반면, 전통적 부문에 고용되거나,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수준은 더욱 낮아지게 되면서, 그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더욱 심화

3) 브라질의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인 부의 분배, 교육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저자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윤택동, 2001). 그리고 Barros, Mendoca & Henriques(2000)는 그들의 논문에서 브라질 불평등의 한 특징으로, 브라질은 가난한 나라는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세 번째 문제는 구매력을 가진 계층이 소수의 상류층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생산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생산 구조상 왜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다(Baer, 1996, pp. 96~97). Celso Furtado에 의해 지적된 이 문제는 앞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문제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브라질의 부의 분배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산업활동이 국내에 구매력을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부유층의 수요에 맞춘 생산활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위의 문제점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문제는 아주 단기적으로 볼 때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이자나 임금, 고용 등과 같은 몇 개의 요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오로지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관관계하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브라질의 산업발전과정의 문제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으며, 특히 브라질의 경우는 이들 정치, 경제, 사회적 기본조건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 이전까지 브라질 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 가운데 산업부문이 급성장하면서 경제전체가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라 발생한 브라질 내부문제, 막대한 대외부채와 고인플레이션은 브라질 경제에 큰 악영향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산업부문은 어떻게 변천하였을 것인가, 즉 이미 서두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분석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초점이다.

산업활동은 산업정책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산업정책이란 거시경제정책 속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국가의 낙후된 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려는, catch-up 의도를 가진 정부의 개입정책을 의미한다. 정부가 구체적

으로 개입하는 정책형태로는 조세나 금융측면에서 인센티브 및 보조를 통한 간접적 유도정책과 인허가제, 할당제, 시장진입규제 등의 직접규제 정책이 있을 수 있다. 개도국의 산업화와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산업발전모델을 든다면 수입대체 산업화와 대외지향수출산업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남미에서 주로 채택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는 이 지역 국가경제가 1980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발전모델로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으며, 동아시아에서 주로 채택되었던 대외지향수출산업화가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개도국의 산업발전모델로서 많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와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드러난 이 국가들의 문제점을 보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취했던 산업정책이 과연 적절하고 효율적인 것이었던가 하는 국제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이와 연관하여 Howard Pack(1999)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분석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취해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산업정책이 산업부문에서의 생산성 내지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1/3 정도로 볼 때, 산업활동의 개선이 경제성장의 전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 두 국가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산업성장 외에도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 높은 교육수준, 기업활동환경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할 때, 여타 개도국들이 단순히 이들 양국의 산업정책만을 본받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활동은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되며, 따라서 산업정책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산업활동의 호조만으로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으며, 여타 다른 변수들에서 호의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브라질 산업활동을 분석하면서,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해 1980~90년대 경제전체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1980~90년대 중반까지 브라질 산업활동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계량모델을 사용하여 기본 추세와 계절성을 분석하며, 또 산업내부적 생산성 변화에 의한 구조변화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국제적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이후 브라질 산업활동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한국의 접근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제 2 장 브라질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1980~90년대

1980~90년대의 브라질 경제정책은 단번에 쉽게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1980년대에는 반정통적(heterodoxy) 기조의 경제정책이 두드러진 반면, 1990년대에는 정통적(orthodoxy) 기조의 경제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해오던 브라질은 1980년대에 들면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에 대응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초긴축정책을 통해 대외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게 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때까지 전반적으로 지켜오던 정통적 경제정책을 버리고 반정통적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말까지 반정통적 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따라서 브라질 경제학자들은 이 기간을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1990년에 들면서 다시 정통적 정책으로 회귀하게 되었고,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국내경제는 안정을 회복하고 성장의 기반을 다시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서 1980~90년대 브라질 경제의 혼란 그리고 안정과 성장추세로의 전환이라는 큰 변화가 단순히 정통적 또는 비정통적 정책 때문인가는 분명히 논쟁의 대상이 된다. 저자가 보기에는 경제정책 외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브라질 산업부문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므로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브라질 경제정책의 주된 흐름을 1980년대와 1990년대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1. 1980년대 브라질 경제 및 산업정책: 反정통적 경제정책

가. 1980년대 초반의 정통적 경제정책: 1980~84년

1970년대 후반, 국제금융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었던 자본을 기반으로, 수입대체산업화의 마지막 단계인 중간재 및 중화학공업부문이 국내에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산업정책은 브라질 경제정책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Batista, J.C, 1988). 그러나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그 상황은 180도 전환된다. 1979년의 2차 석유위기, 그리고 1980년으로 접어들면서 국제이자율의 급상승으로 인해,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대규모로 대외부채를 누적해왔던 브라질경제는 심각한 외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Carneiro, 1992), 이후 4~5년간 브라질은 국제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서 대외자본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외로 대규모 국내자본이 순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Batista Jr., P.N., 1988, 1990). 다시 말해, 국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의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지원된 자금마저 회수하자, 대외부문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되었다.

브라질로서는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리하여 국가적으로 초긴축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내의 모든 가용자본을 모아 대외부채상환과 이자지불에 사용하여야만 했다. 이로 인해 투자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국내소비도 물론 줄어들게 되었다(그림 3-15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 투자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이제 산업정책은 1970년대에 경제를 주도하던 위치에서, 1980년대에 들면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대외부문에서의 제약을 해결하고자 브라질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산업부문에서의 수출을 더

욱 장려하였고, 기계, 중간재, 소비재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관세를 올리게 되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 볼 때, 1970년대에는 국내에 새로이 설치된 산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즉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주로 활용해 왔었으나, 1980년대에 들면서는 관세장벽까지 높이게 되었고, 이 관세장벽이 1980년대에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Rossi Jr., Ferreira, 1999).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대외적 제약이 등장하면서 그 대응과정에서 외화창출을 위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활용되었으나, 이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국내시장 보호장벽을 높인 결과가 되었고, 1980년대 전체기간 동안 브라질 산업부문은 결과적으로 국내시장에 안주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침체는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가 된다(표 3-1 참조). 국내의 투자지출과 개인소비지출의 감소는, 다시 말해 수요의 감소는 자연히 생산의 감소를 가져오고, 따라서 국내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기존의 기업들은 자연히 대외로, 즉 수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자본수지에서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출에 대한 관심증가는 정부차원에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수입이 감소됨으로써 브라질은 대외교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창출하였고, 1984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대외부채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나. 1980년대 중반과 후반의 反정통적 경제정책: 1985~89년

그러나 1980년대 초반 대외부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브라질은 향후 직면하게 될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

과 공공부문의 막대한 부채, 그리고 재정 불균형이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여, 대외부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원이 대외로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부채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이 부채의 상당부분이 공공부문의 몫이었다. 따라서 정부재정의 상당부분이 부채서비스를 이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했고, 이는 재정에 무거운 부담을 주게 되어 결국 재정적자를, 다시 말해 재정불균형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또 정부가 국내의 가용재원을 끌어 모아 대외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의 상승과 재화의 공급부족이 야기되면서 인플레이션의 급상승을 가져와, 1980년에 100%, 1983년에는 200%를 넘어 가속화되었다. 결국 대외부채, 공공부채, 정부의 재정 불균형, 인플레이션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함과 동시에 영향을 미쳐,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상황이 형성되었다(Carneiro & Modiano, 1992). 198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경제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정책이란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가 없었다.

1986년의 Cruzado(끄루자두) 계획에서부터 브라질은 반정통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같은 경제정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1980년대 초반 이후 브라질 경제학계에서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이 이미 관성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관성적 인플레이션하에서 경제주체들은 인플레이션에 적응하면서, 각자 마음 속에 이미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Resende, 1989).[4] 따라서 브라질 인플레이션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제거해야

4) 일반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은 시장의 가격기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나, 브라질의 장기적인 관성적 인플레이션속에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큰 문제없이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Correcao monetaria라는 자산에 대한 가치조정메커니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된다는 것이 당시 경제학계의 분석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기대심리를 제거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두 가지 대안이 대두되었는데, 하나는 가격동결을 비롯한 反시장적, 反정통적인 방법이었고, 또 다른 대안은 재정균형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정통적 접근 방안이었다. 1986년 2월, 당시 정책수립자들은 첫 번째 방법을 채택하여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시도하였다. 이어서 1986년 12월, 1987년, 1989년에 계속적으로 반정통적인 인플레이션 안정화정책이 시도되었으나, 결국 이 계획들은 모두 실패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가속화되었다(BIER, PAULANI & MESSENBERG, 1987; Modiano, 1992).

1986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500%를 넘어서고,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시장에서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상황, 즉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경제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정책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브라질 경제는 상당히 무질서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는 침체상태에, 그리고 생산부문은 높은 시장보호 속에서 국제적인 추세와는 반대방향으로 가면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2. 1990년대 브라질 경제 및 산업정책: 정통적 경제정책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첫 2~3년 동안의 경제정책은 두 가지 성격을 보여준다. 우선적으로, 이때 실행된 경제정책들은 反정통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즉, 1990년과 1991년의 Collor 계획 I과 II는, 이전 1980년대의 계획들처럼, 가격동결, 그리고 더 나아가 예금인출동결 등과 같은 과격한

反시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장개방을 통해 국내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정통적 정책 측면의 성격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때를 이전의 반정통적 접근에서 정통적 접근으로 전환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반정통적 접근의 한계와 국내경제의 심각한 장기침체 그리고 국제경쟁력 약화를 절실히 느끼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통적인 접근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시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장개방을 위해 이전까지 높게 유지되어왔던 관세를 낮추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브라질의 국내생산부문은 마침내 보호장벽이 걷히고, 경쟁이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즉 시장개방과 이를 통한 경제의 회생, 그리고 경쟁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라는 시도는 1993년 이후 연속적으로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과 이러한 조치들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되었던 1994년의 헤알계획으로 구체화되었고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다(Minsterio da Fazenda, 1993; Baer, 1996, cap.16).

헤알계획의 가장 주된 목표는 인플레이션의 안정, 이를 통해 경제전체의 안정, 시장기능회복과 악화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완화, 그리고 경제의 성장회복에 두고 있었다(Ministerio da Fazenda, 1993). 이들 목표들은 사실 동떨어져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시장기능, 즉 가격기능은 당연히 회복되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강제적 부의 분배악화현상은 멈추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쇄적인 결과로 경제는 자연스럽게 안정을 되찾게 되고, 따라서 약 15년간의 경제침체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던 브라질 경제의 생산은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성장추세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헤알계획의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있다. 앞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인플레이션 억제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인 정통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안이 선택되어 시행되었다. 우선 첫 단계로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제거하기 위해 달러에 연동되어 일정하게 가치를 유지하는 준화폐단위(URV로 불려짐.)를 도입하였다. 당시 브라질 국내시장에서 가치기준이 되었던 달러의 현지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매일 변동되었다. 따라서 이 준화폐단위 (URV)도 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매일 중앙은행이 조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가격을 이 준화폐단위로 표시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경제주체들이 이 단위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때, 화폐개혁을 통해 이 준화폐단위를 Real이라는 화폐단위로 도입하였다. 이렇게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심리를 제거하는데 성공하면서, 정부는 숙원이던 인플레이션 제거라는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사실 이 같은 성공에는 여러 경제조치들이 연관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왔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고, 인플레이션의 갑작스러운 중지가 가져올 임금노동자들의 소득증대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개방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의 수입개방은 1990년대 초반의 수입개방과는 그 기본적인 목적에서 다소 차이, 즉 추가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시장개방은 브라질 산업부문에 강한 충격을 가져왔고, 이에 따른 산업부문에서의 변화는 급속히, 그리고 강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정부가 일관되게 정책을 실천해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안정, 유지되었고, 브라질 경제는 예상한 대로, 강한 성장추세를 보여주었다.

결국 1990년대 중반의 브라질 경제정책의 주된 축은 경제의 안정화를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는 데 있었고, 여기에는 재정균형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과, 엄격하며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수반되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개방이 당시 경제정책의 근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1980년대 높은 관세장벽을 통해 보호받는 브라질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전반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공공부문의 개혁, 인프라시설 개선, 민영화, 산업구조개혁, 특히 산업조직부문과 기술부문에서의 개혁이 강조되었다. 결국 경제가 안정되고, 강한 내적 성장추세가 발생되는 가운데, 산업정책은 개방경제하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집중되었다. 이는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국내산업 활동의 활성화가 경제성장에 필수적 요인이 되고, 이것은 개방경제하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제 3 장 브라질 산업부문에서의 변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브라질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골격과 그에 따른 산업정책적 측면을 앞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정책 흐름 속에서 브라질 산업부문은 어떻게 반응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이번 장에서 살펴본다. 우선 이 기간 중 브라질 GDP 성장률의 변화를 통해 전체경제활동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산업전체활동수준의 변화를 통해 성장과 침체 그리고 계절적인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성 변화를 기초로 한 산업구조적 변화를 분석한다.

1. 브라질 경제의 전반적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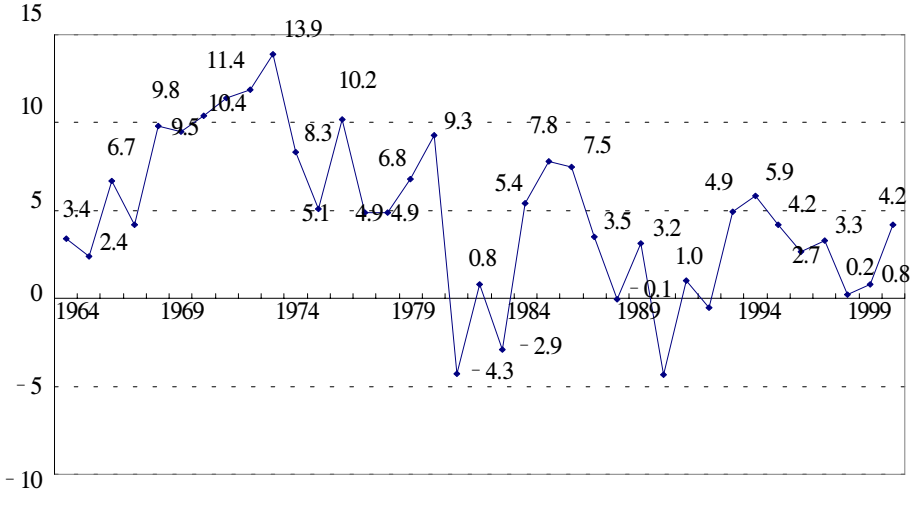
1960년대 이후 브라질 경제활동은 크게 두 기간으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1980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높은 성장률과,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상대적 저성장으로 대비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인 1980~90년대는 이전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 즉 경제적 침체기간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대상 기간 내에서도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첫째, 우선적으로 1980년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5

전반을 지배하였던 반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4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아주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1〉 브라질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Yoon(1999); Banco Central do Brasil(2001, 4월)

둘째, 1980년대의 경제침체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정책대응의 부적절성, 높은 인플레이션, 정치적 무질서, 정책의 비일관성 등 내적요인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이전과 반대로 시장개방, 인플레이션의 안정, 정책의 일관성 등 내적요인의 상대적 안정회복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여건이 만들어졌으나, 1995년 멕시코위기, 1997~98년 아시아 및 러시아 외환위기 등 국제적 금융위기라는 외적 요인이 브라질 경제가 침체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즉 1980년대는 내적요인이 주된 문제

점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외적 요인이 브라질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5)]

<표 3-1>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브라질의 기적으로 불렸던 기간인 1968~73년 사이에는 연평균 11%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낮아지기는 했지만 1970년대 나머지 기간에도 연평균 7%대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979년 2차 석유위기와 1980년대 초반 국제금융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금리상승으로 브라질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1981~83년 사이에는 연평균 -2.2%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표 3-1〉 브라질 연평균 성장률

(단위: %)

	1964~73			1974~80	1981~92				1993~97
	평균	64~67	68~73		평균	81~83	84~86	87~92	
평균성장률	8.4	4.2	11.2	7.1	1.3	-2.2	6.9	0.3	4.2

자료: Yoon(1999); Banco Central do Brasil, Boletim(2001, 4월); Conjuntura Econômica(1997, 10월).

그리고 1964년 이후 유지되어 오던 군정이 끝나고 민정으로 전환되던 시기였던 1984~86년 사이에는 비정상적인 6.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당시 성장은 경제적 성장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함에 따라, 곧이어 1987~92년 사이에 다시 침체에 빠져, 이 기간 중에 0.3%라는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5) 1990년대 후반 브라질 외환위기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윤택동(2000)과 윤택동, 이종걸(2000)을 참조.

〈표 3-2〉 브라질 일인당 국민소득 변천

(단위: 달러)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일인당 GDP 소득	485	1.309	2.111	1.598	3.042	4.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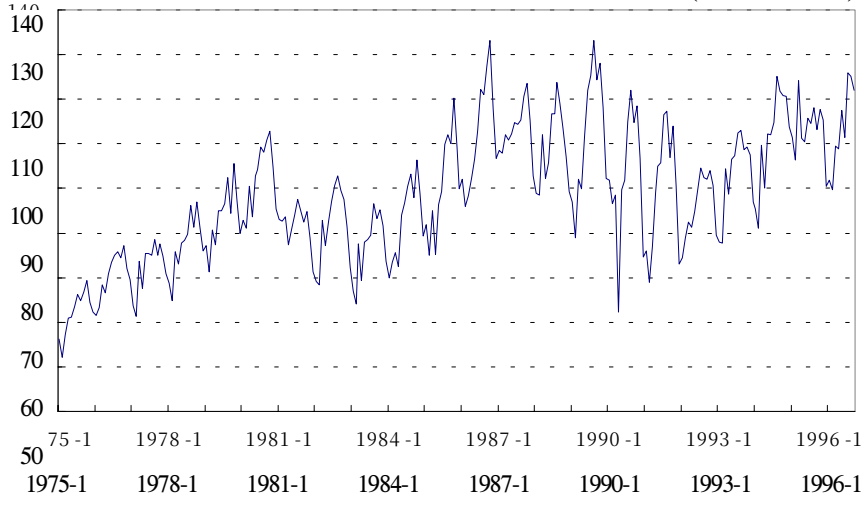
자료: : Conjuntura Econômica(1997, 10월), p. XVIII.

개별경제주체 즉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표 3-2>의 일인당 국민소득 변화는 1980년대의 브라질 경제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980년 2,111달러에 도달하였던 일인당 국민소득은 1985년 1,598달러로 감소하였고, 1980년대 말에 가서야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에 브라질 경제는 2~3년 단위로 널뛰는 듯한 경

〈그림 3-2〉 브라질 전체산업활동

(단위: 1990=100)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1997)

기의 변화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성장의 심한 부침(浮沈)은 경제적 현실이 얼마나 불안정하였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었던 혼란과 어려움은 어떠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6]

2. 브라질 산업부문의 성장과 침체 그리고 계절적 특성

이제 브라질 산업의 양적변화라고 할 수 있는 성장추세를 살펴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브라질 산업활동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브라질 통계청(IBGE)이 발표하는 월별 전체산업(Industria Geral: IG) 활동지수 <그림 3-2>를 선택하였다.[7] 이 IG는 결국 각 산업부문별 활동이 종합된 것이므로 세세한 산업활동분석을 위해서는 부문별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산업 전체적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해 IG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이 절에서는 IG의 추세와 계절성을 분석하고, 브라질 산업전반에서 생산성을 포함한 질적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체산업활동에서의 움직임과 특성,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가. 분석모델

우선 IG의 추세와 계절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 두 개의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6)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림 3-15>와 거기에 딸린 설명을 참조.
7) 여기서 전체산업은 광업과 제조업의 합을 의미한다. <그림 3-2>에서 나타난 자료는 계절성이 제거되지 않은 原자료이다.

Y = 상수(C) + 추세(T) + 계절성(S) + 잔차(E) ····· (1)

Y = 추세(T) + 순환(Cycle) + 계절성(S) + 불규칙(Irregular) ····· (2)

모델 (1)은 산업활동의 추세, 즉 일정기간 중에 산업활동이 성장과 하강하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다. 이 모델의 회귀추정(OLS)에 사용되는 IBGE의 월별자료는 계절성이 제거되지 않은 原자료이다. 따라서 모델 속에 계절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 산업활동의 추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성장 및 하강구간을 구분해야 한다. 즉, 일정구간 내에서 성장과 하강이 함께 있을 경우, OLS 추정은 정확한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추세를 갖는 구간으로 구분이 필요하며, 이 구간을 구분하기 위해 Chow Test를 실시한다. Chow Test는 계수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것이다. 일정구간 내에서 계수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 성장에서 하강으로 변화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전 구간을 추정하여 얻은 잔차의 제곱의 합(RSST)이, 이 구간을 성장구간과 하강구간으로 나누어 추정하여 얻은 두 구간의 잔차의 제곱 합(RSS1 + RSS2)과 비교할 때,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일정구간 내에서 계수상의 변화가 없을 경우, 이들의 차이는 거의 미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용해 계수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Chow Test이다.[8] 이 테스트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두 번째 구간의 관찰된 자료의 갯수가 충분하게 클 경우 (3)의 방식을 이용하며, 만약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4)의 방식을 써서 추정계수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8)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간을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전체구간 내 어느 점에서 계수의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찾기 위해서는 CUSUM test를 하였다. 또 Chow test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두 구간의 잔차의 제곱합 수준이 비슷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Chow test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도 먼저 확인해야 한다.

$$\frac{[RSS_T-(RSS_1+RSS_2)]/k}{(RSS_1+RSS_2)/n-2k} \quad \text{단 } n_2 > k\text{인 경우} \quad \cdots\cdots (3)$$

$$\frac{(RSS_T-RSS_1)/n_2}{RSS_1/(n_1-k)} \quad \text{단 } n_2 > k\text{인 경우} \quad \cdots\cdots (3)$$

k는 모델 속에서 추정되는 변수의 수이며, n, n_1 그리고 n_2는 각기 전체 구간,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의 관찰된 자료 수이다. RSS_T, RSS_1 그리고 RSS_2는 각기 전체구간,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 추정된 잔차의 제곱 합이다.

두 번째 모델인 (2)는 Basic Structural Model(BSM)[9]을 이용하여 계절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원래 BSM은 시계열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 모델의 특징을 이용하여 계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이 모델의 특징이라면, 모델 (1)은 OLS 방식을 통해 추정을 하는 데 반해, 모델 (2)는 Kalman filter를 사용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OLS는 전 구간의 평균을 사용하는 반면, BSM은 Kalman filter을 이용하여 자료가 추가될 때마다 매번 다시 추정한 다음, 다시 추정된 그 추정계수를 통해 그 다음을 예상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Kalman filter를 적용한 BSM이 OLS 활용모델 또는 ARIMA 모델보다 좀더 정확성을 보여주고, 추세의 변화에도 신속하게 적응한다.

나. 성장과 침체 그리고 계절적 특성

앞에서 제시된 첫 번째 모델 (1)을 사용하여 1975년 1월에서 1996년 9월까지 브라질 전체산업활동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9) 이 모델에 대해서는 Andrew Harvey(1993)의 제4장을 참조.

3-3>과 같이 7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었다. 표에서 보듯이 Chow test 결과가 구간들 사이에 추세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이제 이 구분에 따라 각 구간에서의 기울기, 즉 성장 또는 침체의 정도를 확인하고, 구간 사이에 나타난 추세변화를 비교할 수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 모델 (2)를 사용하여 각 구간에서의 월별 생산활동의 수준을 확인하여 브라질 산업활동에 있어서 계절성을 찾아내고, 구간별 계절성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추정된 추세관련계수의 안정성(Chow) 테스트 결과

	구 간	SE	RSS	RSST	Chow Test.*
1	1/75-10/80	2.7189	421.38		
				3635.87	(13.72) 15.155**
2	10/80-2/83	5.8724	551.75		
				3730.25	(13.47) 9.065**
3	2/83-10/86	3.9991	511.77		
				2471.18	(13.46) 8.093**
4	10/86-1/89	3.9999	239.98		
				2288.17	(13.37) 2.238**
5	2/89-12/91	6.8789	1041.01		
				6006.91	(13.66) 16.809**
6	12/91-3/95	3.6139	352.42		
				1190.25	(13.32) 3.984**
7	4/95-9/96	4.5191	102.11		

주: 1) *: 위의 방정식 (3)을 이용하여 계산
2) SE: standard error, RSS: Residual Square Sum
3) RSST: 두 개 구간을 하나의 구간으로 추정하여 나온 RSS
4) **: 유의도 5%

1) 제1, 2구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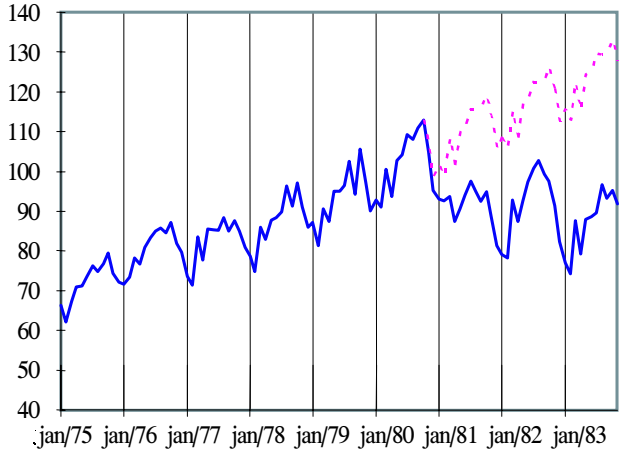
제1구간(1975년 1월~1980년 10월)과 제2구간(1980년 10월~1983년 2월)의 움직임은 <그림 3-3>에서 보듯이 제1구간은 성장, 그리고 제2구간은 하강추세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난 선은, 1980년 10월 시점에서 제1구간의 추세를 기준으로 전망한 것이다. 전망치와 실제 관측치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는 양구간의 추세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1구간에서는 0.46이라는 성장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제2구간은 -0.40이라는 하강추세를 보여준다. 더욱이 <그림 3-4>에서 보듯이 1980년 10월에서 1981년 4월 사이에 산업활동의 수준이 상당히 하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81년에 비해 1982년의 월별 생산지수의 변동폭, 즉 계절성이 의미있을 정도로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전망치와 제2구간의 관찰치를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 즉 산업생산의 추세와 수준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1980년 말에 전체산업활동 수준의 상당한 하락과 함께 성장에서 하강으로 추세가 전환되었으며, 1981~82년 사이에 생산활동이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표 3-4〉 구간별 추세: 제1, 2구간

구간	기간	추정추세
1	1975년 1월 ~ 1980년 10월	0.463
2	1980년 10월 ~ 1983년 2월	-0.4014

〈그림 3-3〉 구간비교: 제1구간에서의 전망치와 제2구간의 관찰치

(단위: 19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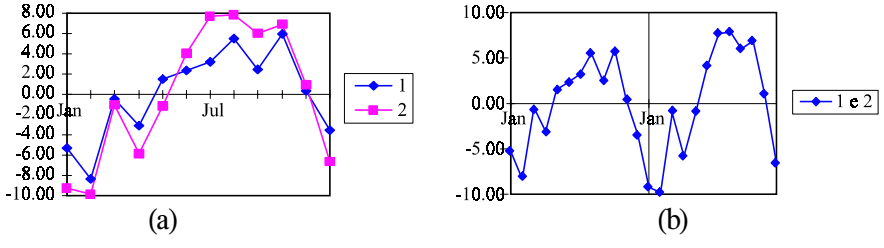
이제 각 구간의 평균적 계절성을 살펴보면 <그림 3-4>와 같이 나타난다(표 3-10 참조). 우선 제2구간의 계절성이 제1구간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 구간 계절성의 일반적인 특징은 2월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며, 8월에서 10월 사이에 생산활동이 최고 수준에 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3월부터 생산활동은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월까지 상승한 다음, 11월부터 하락하여 2월에 최저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3월에 생산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한 후, 양 구간 모두 4월에는 감소한다는 점으로, 1년 중의 생산활동주기 내지 계절성은 브라질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양 구간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계절성의 크기가 제1구간에서는 14.32%이고 제2구간에서는 17.71%로서 두 번째 구간의 계절성이 그림에서처럼 크게 나타나고 있다.[10]

10) 제1구간은 1978년 7월을 기준으로 그리고 제2구간은 1982년 1월을 기준으로 계절성에서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나,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이 같은 계절적 특성은 브라질의 기후와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적도를 끼고 남반구쪽으로 위치한 브라질의 여름은 12월에서 2월까지가 된다. 따라서 매우 더운 이 기간 중에, 대략 1개월 사이에 휴가가 많이 집중된다.[11] 그리고 일반적으로 2월에 카니발이 열리며, 이때 거의 일주일간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브라질 생산활동이 계절적 특성을 보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제1구간과 제2구간의 계절성 비교

(단위: %)



(a) 각 구간의 1~12월 월별 평균생산수준을 한 구간에서 표시 (b) 각 구간의 계절성을 구분하여 표시

양 구간에서의 성장과 침체 그리고 계절성의 변화를 종합할 때, 성장에서 하강으로의 추세 반전과 계절성의 확대, 그리고 제2구간 내에서의 불안정성은 1979년 석유쇼크가 시간을 두고 브라질 국내생산활동에 미친 영향, 그리고 1980년에 들면서 시작된 국제이자율의 급상승으로 인해 산업활동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경제전체가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에 장기적으로 건실하게 성장해 왔던 전체산업활동이 석유위기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과 함께 침체로 빠져드는 과정을 산업활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 최근 브라질 정부는 휴가기간을 짧게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또 에어컨을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여름에도 지속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계절적 현상은 브라질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남아있다.

2) 제2구간과 제3구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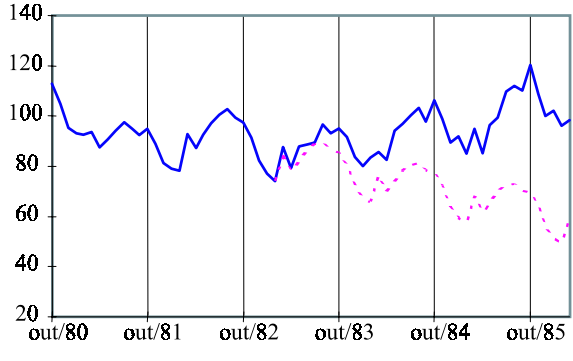
제2구간과 제3구간을 비교하면, 다시 생산활동이 하강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 1983년부터 안정을 회복한 후 다시 1984년 이후 강한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2구간의 -0.40에서 제3구간에서는 0.7이라는 높은 기울기를 기록하면서, 점선으로 나타난 전망치와 실제 관찰치 사이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12]

〈표 3-5〉 구간별 추세: 제2, 3구간

구간	기 간	추정추세
2	1980년 10월 ~ 1983년 2월	-0.4014
3	1983년 2월 ~ 1986년 10월	0.6995

〈그림 3-5〉 구간 비교: 제2구간에서의 전망치와 제3구간의 관찰치

(단위: 19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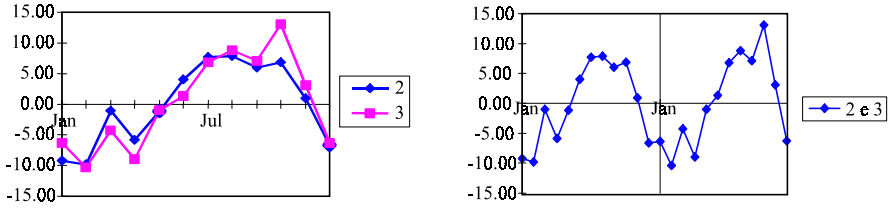


12) 제2구간과 제3구간의 구분을 또 다른 관점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2구간을 1980년 10월에서 1984년 4월까지, 그리고 제3구간을 1984년 5월에서 1986년 10월까지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경우 1983년은 1982년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회복하면서 생산활동수준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할 때, 오히려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제2구간은 산업활동수준이 제1구간에 비해 크게 떨어진 채 유지되었으며, 이 기간 중에 생산활동수준이 상당히 불안정하였으며, 제3구간은 강한 성장추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6>에서 양 구간의 계절성은 유사하게 보인다. 역시 앞의 제1, 2 구간의 경우와 같이 최저점이 2월에서, 그리고 최고점이 8~10월 사이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브라질에서의 계절적 특징을 분명하게 의미한다. 제3구간의 계절성이 제2구간보다 다소 커보이나, 의미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하나의 차이는 최고점이 8월이 아니라 10월이라는 점이다. 제1구간에서도 10월이 최고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제2구간과 제3구간의 계절성

(단위: %)



제2구간과 제3구간의 추세와 계절성을 종합·분석하면, 1980년에서 1983년 사이에 산업성장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침체와 불안정한 시기를 지난 반면, 1984년부터는 예전수준을 회복하면서 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산업생산이 성장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한 성장추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약 3년간의 침체로 인한 자연적 반등, 둘째, 제3구간의 기간 중에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전환되었고, 민간정부는 이제까지 경제위기를 자초했던 대외적 제약조건보다는 국내적 상황과 여론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국내소비증대를 가져오는 정책을 취하였던 것이다.

3) 제3구간과 제4구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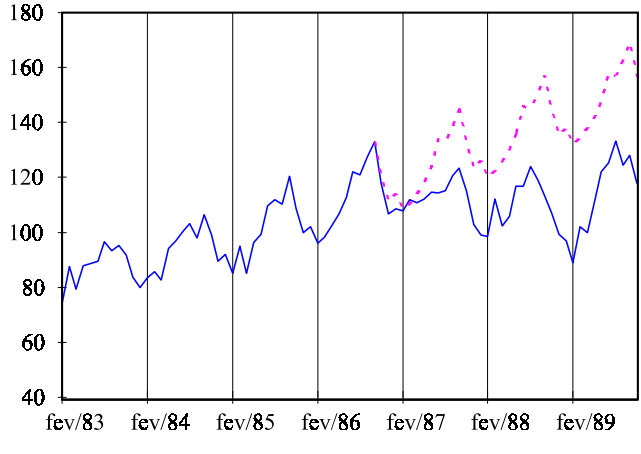
제3구간과 제4구간은 또 다시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그림 3-7 참조). 1984년부터 시작된 강한 성장추세는 마침내 1986년 말부터 다시 하강추세로 전환되어 이후 장기간 침체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번 생산활동의 침체는 앞의 제2구간에서의 침체와는 다소 다른 면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제2구간에서는 생산수준의 감소와 하락추세가 함께 발생하였으나, 제4구간에서는 생산수준의 감소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생산활동의 하락추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의 브라질 경제전체

〈표 3-6〉 구간별 추세: 제3, 4구간

구간	기간	추정추세
3	1983년 2월~1986년 10월	0.6995
4	1986년 10월~1989년 1월	-0.3876

〈그림 3-7〉 구간 비교: 제3구간에서의 전망치와 제4구간의 관찰치

(단위: 19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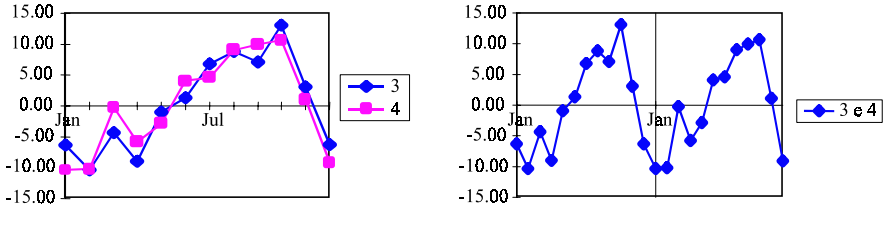


의 환경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2구간에서는 대외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국제금융시장이 경직되자, 그때부터 대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아니라 대외로 국내자본을 유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따라서 경제전체가 갑작스럽게 초긴축상태로 들어가야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생산활동수준 자체가 하락하게 되었으나, 제3구간에서는 경제가 자체의 내부적인 힘으로 성장을 지속하다가, 성장력이 소진되면서 제4구간에서 하강단계로 접어든다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8>에서 나타난 양 구간의 계절성을 비교하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양 구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2월과 9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3구간뿐만 아니라, 제1 및 제2구간에서도 2월과 9월은 생산활동이 전달에 비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제4구간에서는 2월과 9월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최저점이 제4구간의 경우에는 1, 2월이 거의 비슷하지만, 1월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고점인 경우에 10월로 같게 나타나고 있다.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차이는 제3구간의 경우, 23.44%였으나, 제4구간은 20.97%이다.

〈그림 3-8〉 제3구간과 제4구간의 계절성

(단위: %)



종합적으로 볼 때, 제4구간에서 발생된 추세변화는 제3구간에서 국내의 지나친 소비지향적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 성장의 힘은 짧은 기간에 소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어져 있던 경제여건을 무시하고 취한 소비지향적 정책이 가져온 각종 부작용, 또 1986년 초반에 실시되었던 반정통적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 실패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 실패하자 더 이상 시장에 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등 경제의 기초여건은 매우 악화되었으며, 향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4구간으로 물려주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하에, 제4구간이 시작되면서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고, 당연히 생산활동도 하강추세로 접어들게 되었다.

4) 제4구간과 제5구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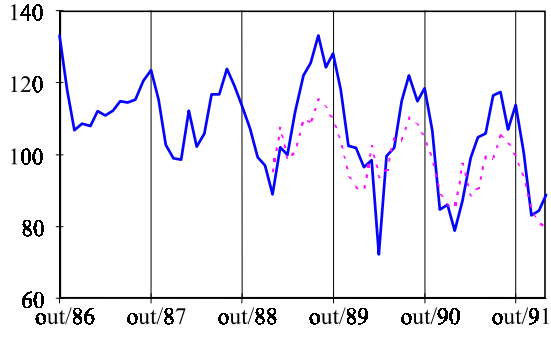
제4구간과 제5구간의 차이는 이전의 구간들과는 달리 상승에서 하강 또는 하강에서 상승으로의 추세변화가 아니라, 주된 차이는 생산활동자체의 변동폭, 다시 말해, 계절성의 크기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추세를 살펴보면, 제4구간에서 -0.38의 하강추세에서 제5구간은 -0.55의 좀더 하강추세를 보여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제4구간의 추세와 계절성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점선으로 나타난 예상 전망치를 보면, 제5구간의 관찰치에 비해 그 변동폭이 여실히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9 참조).

〈표 3-7〉 구간별 추세: 제4, 5구간

구간	기간	추정추세
4	1986년 10월 ~ 1989년 1월	-0.3879
5	1989년 2월 ~ 1991년 12월	-0.5537

〈그림 3-9〉 구간 비교: 제4구간에서의 전망치와 제5구간의 관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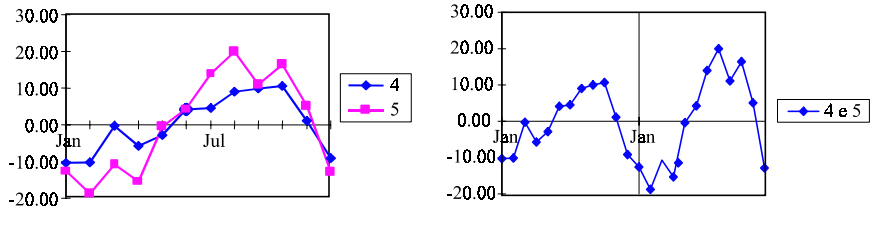
(단위: 1990=100)



이번에는 계절성이 양 구간 비교의 주된 초점이 되고 있다. <그림 3-10>을 볼 때, 브라질 산업생산활동의 일반적 특성인 2월 최저점, 그리고 8~10월 사이에 최고점에 달하는 계절성은 제5구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4월과 9월에는 전월에 비해 생산활동이 떨어지는 현상 또한 발생되고 있다. 8월에 최고점에 도달한 차이를 제외하면, 제5구간에서의 계절성의 추이는 일반적인 계절성과 차이가 없지만, 그 변동폭의 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4구간에서의 변동폭이 20.97%이었으나, 제5구간은 변동폭이 32.87%에 달하고 있다.

〈그림 3-10〉 제4구간과 제5구간의 계절성

(단위: %)



결국 제4구간과 제5구간의 차이는 생산활동이 더욱 침체되었으며, 또 생산활동의 변동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과적으로 브라질 경제자체가 더욱 불안정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1986년 2월 첫 반정통적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이후, 제5구간의 기간 중에 나온 여러 반정통적 인플레이션 억제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면서, 브라질 현지 화폐는 그 기능이 제약되고,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치기준은 달러로 계산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체제에서 시장기능이 크게 제약되었고, 정부정책은 시장에서 제한적 영향력만을 미치게 되는 등, 브라질 경제전체가 극도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진입된 시기이다. 따라서 산업생산활동에서도 이같은 불안정성의 영향으로 인해 변동폭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장기적 투자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초 단기적인 형태로 가게 되었음을 제5구간의 산업생산활동을 통해서도 찾아낼 수 있다.

5) 제5구간과 제6구간 비교

제4구간에서 시작되어, 제5구간에서도 지속되었던, 즉 1986년 10월에서 1991년 10월까지, 5년간 계속 하강하였던 산업생산활동은 1992년부터 서서히 전환의 신호를 보여주기 시작하여, 1993년부터는 강한 상향추세와 함께 마침내 성장으로 재돌입하였다.[13] 제5구간에서 -0.55였던 기울기가 제6구간에서는 0.69라는 높은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 결국, 제6구간은 장기점 하락에 따른 자연적 반등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1984년에서 1986년의 3년을 제외하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경

13) 구간 구분에서 고려할 점으로 제2구간과 3구간에서처럼, 1992년을 하락추세의 연장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는 1993년 2월이 제5구간과 6구간의 구분점이 된다. 다시 말해 1992년은 양쪽에 모두 포함되어 해석될 수 있는 기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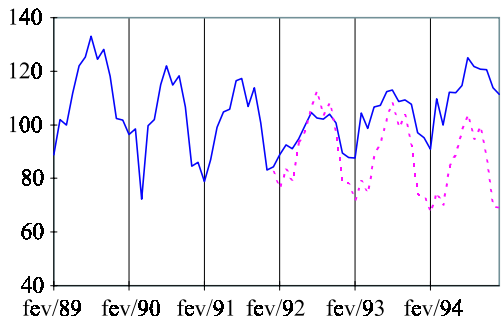
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감안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 도달한 생산활동의 자연적 반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1990년대 초부터 브라질 내부적으로도 서서히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의 혼란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향후 방향설정에 대한 내부적 의견 통일은 이후 강한 성장력의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표 3-8〉 구간별 추세: 제5, 6구간

구간	기간	추정추세
5	1989년 2월 ~ 1991년 12월	-0.5537
6	1991년 12월 ~ 1995년 3월	0.6936

〈그림 3-11〉 구간 비교: 제5구간에서의 전망치와 제6구간의 관찰치

(단위: 19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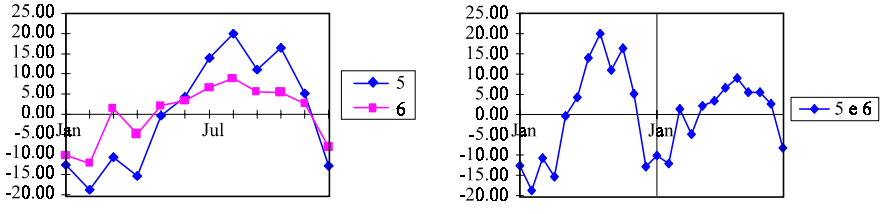


계절성의 경우에는 제6구간 역시 일반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최고점이 8월인 점도 제5구간과 같다. 그러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역시 계절성의 변동폭에 있다. 제5구간의 32.87%에 비해, 제6구간은 21.13%로 줄어들어, 이전 제4구간의 변동폭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Real 계획이 발표된 1994년 7월 이후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었던 1992~93년에도 장기간 지속되어 온 高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적응과 향후 인플레이션 개선에 대한 기대형성 등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2〉 제5구간과 제6구간의 계절성

(단위: %)



결국, 제6구간에 접어들면서, 좀더 정확하게 1993년 후반부터 실시된 정통적 경제안정화 정책과 그리고 1994년 7월에 실시된 헤알(Real)계획으로 인플레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마침내 경제가 안정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경제활동의 자연스러운 팽창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점은 경제의 불안정성과 나쁜 방향으로 기대형성은 국가경제활동과 산업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이제까지의 여러 구간, 특히 제2, 5, 6구간의 분석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6) 제6구간과 제7구간 비교

제6구간에서 제7구간으로의 추세변화는 제7구간의 관찰치가 짧으므로 분명하게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제6구간에서 보인 강한 성장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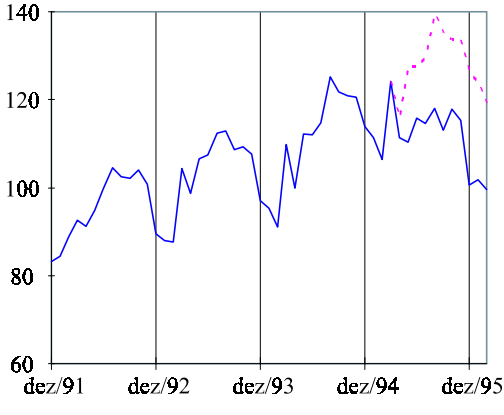
세가 약화된 것은 분명하다. 추정된 기울기가 제6구간의 0.69에서 제7구간에는 0.38로 감소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 <그림 3-13>에서는 1996년 3월까지만 나타나 거의 수평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림 3-2>의 1996년 9월까지 나타난 <그림 3-2>를 보면 곧바로 회복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당시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안정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금융부문은 이미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내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활동이 약화되는 추세로 변화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멕시코 외환위기를 지적할 수 있다. 1995년 초반부터 시작된 멕시코의

〈표 3-9〉 구간별 추세: 제6, 7구간

구간	기간	추정추세
6	1991년 12월 ~ 1995년 3월	0.6936
7	1995년 4월 ~ 1996년 9월	0.3829

〈그림 3-13〉 구간 비교: 제6구간에서의 전망치와 제7구간의 관찰치

(단위: 19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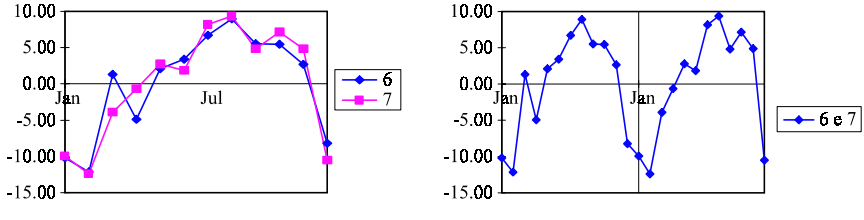


위기는 세계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어 막대한 외채를 가지고 있던 브라질에게 대외금융측면에서 악영향을 주었으며, 이 여파가 경제전체에 미치면서 산업생산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강한 성장력을 보유하고 있던 브라질 경제는 단시일 내에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을 1996년 초반 이후의 관찰치가 보여주고 있다.

계절성 측면에서 비교할 때, 일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비슷하다. 즉, 년초의 최저수준에서 8~10월에 최고점에 달하는 생산의 계절성은 양 구간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지, 7, 8월에 비해 9, 10월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제6구간 이전의 경우와 다른 점이고, 제7구간에서의 특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3월보다 4월의 생산수준이 낮으나, 4월이 3월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또한 멕시코 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변화로 보인다. 그리고 계절성의 변동폭은 21.77%로 제6구간의 변동폭과 거의 비슷하다.

〈그림 3-14〉 제6구간과 제7구간의 계절성

(단위: %)



종합할 때, 1995년 4월 이후의 제7구간에서 보여지는 주된 특징은, 제6구간에서 생겨난 브라질 내부의 강한 성장력이 대외적 충격에 부닥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브라질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대외부채, 그리고 그에 따른 대외부채서비스, 또 대외부채의 상당부분이 정부부문의 몫이었고 따

라서 이에 따른 서비스부담은 재정부담으로 연결되는 등, 대외적으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었던 브라질에게 강한 충격을 미침으로써 국내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멕시코 위기는 브라질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였다. 하지만 내적인 강한 성장추세가 이를 단시일 내에 극복하고 다시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7구간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7) 全구간 종합평가: 산업활동에 나타난 특성

이제까지 각 구간별 성장과 침체, 그리고 계절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전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업활동의 성장 및 하강추세와 계절적 특성을 종합하면 <표 3-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결국 1980년대를 볼 때, 예외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상당기간 산업활동이 침체기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고, 1990년대에 초반을 지나면서 산업활동이 회복 내지 성장추세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계절성은 <표 3-10>과 <그림 3-15>에서 보듯이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절성이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1980년에 100%를 초과하고, 1983년에는 200%, 그리고 이후 계속 가속화된 상황과 연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5구간인 1989~91년 사이에 계절성은 최대로 증가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당시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던 상황에서 새로 시행된 가격동결과 같은 반시장적 경제정책들을 민간부문의 경제주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만을 모색하던, 즉 시장에서 경제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기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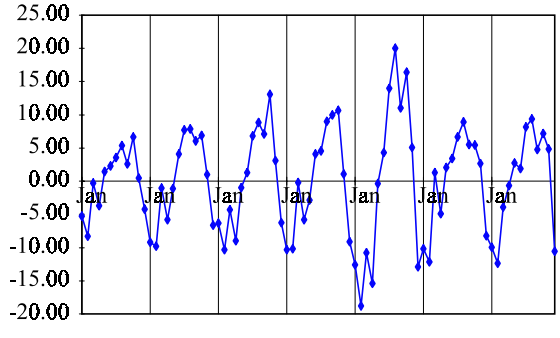
〈표 3-10〉 브라질 산업활동에 있어서 추세와 계절성

		1/75~10/80	10/80~2/83	2/83~10/86	10/86~1/89	2/89~12/91	12/91~3/95	4/95~9/96
추 세		0.463	-0.4014	0.6995	-0.3876	-0.5537	0.6936	0.3829
계절성	1월	-5.31	-9.23	-6.35	-10.33	-12.61	-10.19	-9.94
	2월	-8.36	-9.84	-10.37	-10.20	-18.76	-12.18	-12.41
	3월	-0.47	-1.04	-4.31	-0.24	-10.75	1.32	-3.92
	4월	-3.09	-5.83	-9.01	-5.78	-15.41	-4.91	-0.66
	5월	1.48	-1.13	-0.97	-2.83	-0.39	2.08	2.76
	6월	2.35	4.05	1.31	4.12	4.29	3.39	1.86
	7월	3.21	7.72	6.83	4.57	13.98	6.68	8.19
	8월	5.49	7.87	8.84	9.01	20.00	8.95	9.36
	9월	2.45	6.01	7.08	9.95	11.03	5.54	4.79
	10월	5.96	6.88	13.07	10.64	16.39	5.44	7.17
	11월	0.35	0.96	3.08	1.10	5.09	2.66	4.84
	12월	-3.54	-6.63	-6.29	-9.11	-12.87	-8.21	-10.53
계절변동폭		14.32	17.71	23.44	20.97	32.87	21.13	21.77

주: 계절 변동폭: 각 구간에서 계절성의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의 차이

〈그림 3-15〉 제1구간에서 제7구간까지 구간별 계절성 비교

(단위: 1990=100)



결국 초인플레이션과 반시장적이고 비일관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브라질 경제가 더욱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생산 및 기업활동이 단기화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생산활동의 단기화가 심화되어왔음을 계절성변동의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로 오면서 계절성은 다시 줄어들고 있다.

둘째로, 각 구간별 지속 기간을 알아보면 <표 3-11>과 같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를 보면, 2년 4개월에서 3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약 3년마다 산업활동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잦은 주기변화는 이 기간 중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았고, 국내경제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하였던 점과 연관있다고 하겠다.

〈표 3-11〉 구간별 추세의 지속기간

구간	추세	지속기간
1975. 01 ~ 1980. 10	0.4630	5년 10개월
1980. 10 ~ 1983. 02	-0.4014	2년 4개월
1983. 02 ~ 1986. 10	0.6995	3년 8개월
1986. 10 ~ 1989. 01	-0.3876	2년 3개월
1989. 02 ~ 1991. 12	-0.5537	2년 10개월
1991. 12 ~ 1995. 03	0.6936	3년 3개월
1995. 04 ~ 1996. 09	0.3829	1년 5개월

셋째로, 각 구간에서 계절성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록한 달을 찾아보

면, <표 3-12>와 같다. 브라질 산업활동에서 최저점, 다시 말해 연중 산업활동이 가장 낮은 기간은 2월이며, 최고점은 8월과 10월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8~10월에 산업활동이 가장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브라질의 기후 및 카니발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3-12〉 구간별 계절적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록한 달

구간	최고점	최저점	변동폭
1975. 01 ~ 1980. 10	10월	2월	14.32
1980. 10 ~ 1983. 02	8월	2월	17.71
1983. 02 ~ 1986. 10	10월	2월	23.44
1986. 10 ~ 1989. 01	10월	1월	20.97
1989. 02 ~ 1991. 12	8월	2월	32.87
1991. 12 ~ 1995. 03	8월	2월	21.13
1995. 04 ~ 1996. 09	8월	2월	21.77

3. 브라질 산업부문에서의 구조변화

앞 절에서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활동에서 성장과 침체 그리고 계절적 특성, 즉 量的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제 브라질 산업내부에서 구조적 변화, 즉 質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질적 변화를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생산성이다. 생산성 변화와 투자, 산업부문별 비

중과 같은 연관된 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브라질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다.

가. 산업구조 및 생산성 변화

1930년 이전까지 1차산물 수출경제체제를 갖고 있었던 브라질은 1930년대부터 산업국가로 전환하기 시작, 이후 1980년까지 브라질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수입대체산업화 즉, 국내산업부문의 성장이었다. <표 3-13>에서 보듯이, 1960~70년대에 제조업은 농업부문의 약 2배가 되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 중에 중공업과 화학공업, 기간산업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성장률은 산업이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전환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준다. 하지만, 3.2절에서 언급되었듯이, 브라질 경제는 1980년대에 심한 경제적 혼란과 침체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산업부문 역시 심한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 1980년대에 제조업이 -0.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제조업과 비교해 1980년대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게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탄력성이 중요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14] 1990년대에 들면서, 제조업은 아직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농업은 예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결과적으로 1960~90년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업은 성장폭의 변화가 큰 편인 반면, 농

14) 농업부문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역할과 1970~80년대의 농업내부적 변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찰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농업의 비중과 역할 변화, 기계화를 위한 신규투자, 노동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추세, 생산성 향상, 높은 토지집중도, 국제경쟁력 등과 연관되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업은 그 변화가 적음을,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업부문은 소득탄력성이 크고, 농업은 소득탄력성이 낮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브라질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

〈표 3-13〉 구간별 연평균 성장률

(단위: %)

	국내총생산	농업	제조업
1960 ~ 1970	6.2	4.4	6.9
1970 ~ 1980	8.6	4.7	9.0
1980 ~ 1990	1.6	2.4	-0.2
1990 ~ 1996	2.8	4.1	2.0

자료: Bonelli, Goncalves(1998)

1) 구조 및 생산성변화: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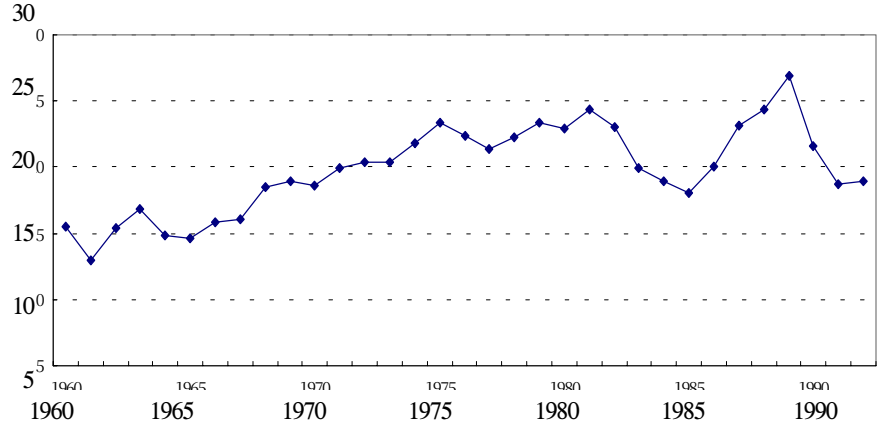
1980년대가 시작됨과 함께, 브라질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산업부문에 투자가 감소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80년까지 브라질 산업부문은 투자를 확대하여, 즉 고정자본형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 브라질 경제위기는 더 이상의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대외부문의 불균형으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우선권을 둘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외국자본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의 가용자본은 대외부채와 그 서비스를 이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Batista Jr. 1988, 1990; Carneiro, 1992; Carneiro and Modiano, 1992).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의 주축을 이루었던 산업부문은 더 이상 경제를 주도하는 부문이 아니었고, 그때까지 정부투자가 고정자본형성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투자의 급

감은 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림 3-16>에서 보듯이, 국내 총투자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1981년 GDP의 24.31%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여 1985년에는 18.01%를 기록하면서 1968년 수준보다도 더 낮아졌다.[15] 투자가 급속히 감소하였던 1981~85년 기간 중, 브라질에서는 막대한 국내자본이 국외로 순유출되었다. 결국, 이 여파로 인해 1981~83년 사이에 경제성장률이 -2.2%를 기록할 정도로, 국내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그 영향으로 산업활동 또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림 3-16〉 국내총투자

(단위: %)



자료: Yoon(1999)

15) <표 3-1>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보면, 이 시기(1980년대)에 분명하게 경제성장률과 투자율 사이에 시차를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시차를 1980년대 전체로 살펴보면, 투자와 성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84~86년 사이 6.9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기간에 투자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성장률이 하락 추세에 있었던 1987~89년 사이에 투자는 증가하여 1989년에는 최고 수준인 26.86%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산업에서 각 부문별 비중과 그 변화를 살펴보자. <표 3-14>에서는 1980~90년 사이, 브라질 제조업 내에서 부문별 비중을 5년 단위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 표를 통해서 양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표 3-14〉 브라질 산업구조: 산업부문별 비중(각 연도별 경상가격기준 비중)

(단위: %)

	1980	1985	1990
목재(Madeira)	2.05	1.19	1.01
가구(Mobiliario)	1.49	1.16	0.99
가죽(Couro e Peles)	0.49	0.60	0.53
제약(Farmaceutica)	1.11	1.15	1.18
향수(Perfumaria	0.82	0.84	0.79
섬유(Textil)	6.50	5.77	5.23
의류(Vestuario)	3.90	4.34	4.09
양곡 및 식료품(Alimentos)	14.05	15.81	18.81
음료(Bebidas)	1.07	1.06	1.15
담배(Fumo)	0.55	0.60	0.61
인쇄(Editorial)	1.63	1.32	2.39
기타(Diversas)	1.49	1.80	2.28
비철금속(Minerais nao Metalico)	4.25	3.02	2.92
금속(Metalurgia)	13.09	13.99	13.12
제지(Papel e Papelao)	2.72	2.81	2.82
고무(Borracha)	1.52	1.66	1.67
화학(Quimica)	19.52	20.88	20.92
플라스틱(Plasticos)	2.05	1.92	1.65
기계(Mecanica)	7.69	6.85	5.99
전기(Material Eletrico)	5.26	5.80	5.38
수송기계(Material de Transporte)	7.94	7.43	6.45
총계	100	100	100

자료: Bonelli, Goncalves(1998)

수 있다. 전체 제조업에서 1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들은 금속, 양곡 및 식료품, 화학부문이다. 금속부문은 대략 13% 정도, 양곡, 식품부문은 16%, 화학은 20%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다. 이들 세 부문을 합하면 50%에 달하고 있다. 1980년대, 금속부문은 그 비중을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양곡 및 식료품부문은 증가추세, 화학부문은 증가 후 유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부문보다는 비중이 작지만, 5~10%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들로서, 전기관련부문(5%), 섬유(5%), 기계(6%), 수송기계부문(7%)이 있다. 앞에서 비중이 큰 3개 부문과 함께 고려할 때, 브라질의 산업구조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으며, 이는 브라질이 그동안 상당한 산업화를 이루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 2~5% 사이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들에는 비철금속, 의류, 제지가 포함되고 있으며, 그리고 1% 전후의 비중을 가진 부문들로서는 목재, 음료, 제약, 플라스틱, 고무부문이 있다. 마지막으로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가구, 향수, 담배, 가죽관련부문이 있다.

여기서 전체 제조업 21개 부문 중에서 1980년대에 그 비중이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인 부문은 양곡 및 식료품부문, 화학 그리고 기타의 3개 부문이며,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부문으로는 목재, 섬유, 비철금속, 기계, 수송기계의 5개 부문이다. 나머지 13개 부문은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면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1980년대 제조업 성장률이 -0.2로 거의 제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적 규모에서도 확대되지 못하였고, 또 부문별로 상대적인 변화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 변화를 좀더 쉽게 확인하기 위해 부록의 <참조 1>을 보면, 1980년대에 부문별 비중크기에 따라 순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비중이 아주 큰 부문들과 아주 작은 부문들에서는 순서변화가 없으며, 중간부문에서도 몇 개 부문의 변동 외에는 그리 큰 변화가 있지 않음

을 볼 수가 있다. 플라스틱과 목재의 순위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편인데, 이들의 비중이 크지 않음을 감안하면, 큰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체 산업활동수준과 고용수준을 살펴보면 <표 3-1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산업활동수준의 경우, 1981~83년 사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1984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1986년에 최고점에 달한 후 다시 감소하여 1990년에는 1980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용수준의 경우는 1984년까지 감소한 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 가서야 1980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고, 그리고 1990년에는 오히려 낮아져 1980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결과적으로 1990년의 산업활동수준과 고용수준은 1980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에 따른 노동생산성 또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두 부문의 움직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984년까지 고용수준은 산업활동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강폭이 더욱 크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84년 이후, 고용수준의 증가는 그 속도도 느리고, 증가 폭 또한 산업활동수준의 상승속도와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1980년대 초반의 생산성 증가는 고용의 급감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며, 1984~86년 사이의 생산성 증가는 산업활동수준의 빠른 증가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980년대 초반, 브라질이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산업부문의 조정은 고용을 감소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1980년대 중반에 산업활동이 증가한 것은 초반에 활용되지 않았던 기존 시설의 활용에 기인한 증가이며, 이때 고용의 증가는 느리게 반응하고 있다고, 즉 산업활동이 장기적인 전망이 아닌 단기적인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표 3-15〉 쌍빠울루지역 산업에서 노동생산성 변화: 1980~90년

(단위: 1980=100)

	산업활동수준(a)	고용(b)	생산성(a/b)
1980	100	100	100
1981	91.5	93.1	98.3
1982	92.0	88.5	103.9
1983	87.4	81.6	107.0
1984	98.4	81.5	120.8
1985	108.1	88.4	122.3
1986	123.9	97.2	127.5
1987	113.4	99.3	114.3
1988	112.9	97.3	116.0
1989	114.7	100.4	114.3
1990	101.9	98.4	103.6

자료: Suzigan(1991), p. 14.

제조업부문별 비중변화와 생산성변화를 종합하면, 1980년대 브라질 제조업은 절대규모 면에서도 확대되지 못하였고, 또 상대적 변화, 즉 부문별 비중변화 자체도 작았다. 그리고 제조업 내부의 질적변화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결국 경제활동의 침체가 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규모나 내적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종합하여, 1980년대에 브라질 산업부문에서의 활동은 경제전반에 불어 닥친 위기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특히 초반의 급격한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그 이후 인플레의 급등, 재정불균형, 대외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경제는 무질서해지고, 투자는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잃고, 산업활동 역시 현실을 반영하여 침체와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2) 구조 및 생산성변화: 1990년대

1990년대에 접어들어 초반을 지나면서, 브라질경제의 성장회복과 함께, 산업활동 또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6>에서 나타나듯이, 1980년대 10년 동안 거의 정체되었던 제조업활동이 1993년부터 높은 성장추세를 기록하다가, 1995년 성장추세가 다소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다시 負의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활동에서 이와 같은 변동은 1995년 멕시코 위기와 1998년 동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의 영향 때문이다.

〈표 3-16〉 브라질 제조업 성장률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제조업성장률	-8.2	0.3	-4.2	7.0	6.7	1.9	3.3	5.8	-1.3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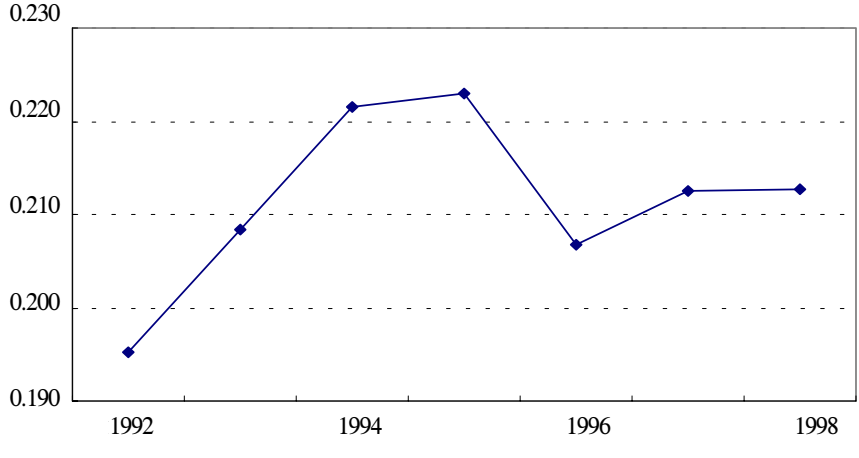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Boletim(2000년 7월호)

1990년대 투자는 <그림 3-17>에서 보듯이, 1993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브라질 국내 총자본형성률은 1992~95년 사이에 약 2% 남짓 증가하여, 1995년에는 GDP의 22%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총자본형성률에서, 또 산업성장률과 경제성장률에서도 1995~96년에는 세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이는 1995년 멕시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강한 성장추세를 보여주던, 브라질의 경제활동 전체가 대외적인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따라서 투자 증가추세가 대외적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면, 내적 성장추세는 강력한 반면, 브라질 경제의 취약성은 대외부문에 있다는 점을 지적해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의 안

정화,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대규모의 대외부채, 그리고 그에 대한 서비스 부담, 특히 대외부채의 상당부분이 공공부문의 몫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브라질 경제에 가장 큰 취약점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멕시코 외환위기의 영향은 지속되지 않고, 1996~97년에 큰 폭은 아니지만 회복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투자 증가추세의 일시적 중단과 강력한 내적 성장추세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림 3-17>에서 나타나는 자본형성률의 움직임은 제조업 활동추세와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에 이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1980년대 자본형성률이 경제성장 및 제조업 성장률과 상당한 시차, 더 나아가 반대적인 추세를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브라질 경제가 안정을 회복하면서 시차가 축소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림 3-17〉 총자본형성/GDP

(단위: %)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Boletim(1998년 7월호, 2000년 7월호)

산업활동의 절대규모가 1990년대 초반 이후 확대되는 과정에서, 산업 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몇몇 부문에서 다소간의 비중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표 3-17>에서, 전기 및 통신부문과 수송기계부문의 비중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기 및 통신부문의 경우, 1990년대 들면서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통신부문의

〈표 3-17〉 브라질 산업구조: 부문별 비중, 연평균(198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1990~92	1993~96
전체산업(Industria Geral)	100	100
광업(Extrativa Mineral)	5.25	5.15
제조업(Industria de Tranformacao)	94.99	95.30
비철금속(Minerais nao-Metalico)	2.98	2.83
금속(Metalurgica)	12.90	13.06
기계(Mecanica)	6.05	6.30
전기 및 통신(Material Eletrico e de Comunicacoes)	5.97	6.76
수송기계(Material de Transporte)	6.43	7.71
제지(Papel e Papelao)	3.12	3.05
고무(Borracha)	1.78	1.79
화학(Quimica)	18.36	17.71
제약(Farmaceutica)	1.11	1.07
향수, 비누, 양초(Perfumaria, Saboes e Velas)	1.11	1.12
프라스틱(Produtos de Materias Plasticas)	1.81	1.80
섬유(Textil)	5.31	4.59
의류, 신발(Vestuario, Calcados, Artefatos de Tecidos)	2.92	2.47
양곡 및 식료품(Produtos Alimentares)	16.97	16.56
음료(Bebidas)	1.58	1.67
담배(Fumo)	0.75	0.71
기타(Outros)	5.85	6.10

자료: Bonelli, Goncalves(1998)

발전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전 국영상태에서 기간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던, 즉 투자부족, 기술발전 미흡 등으로 경제전반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던 통신부문이 민영화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그 모습이 변화되고 있음을 그 비중의 변화를 통해 느낄 수 있다. 또 수송기계부문 경우는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수입차가 들어오게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주요 자동차회사들이 브라질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을 확대하기 시작한 데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부록의 <참조 2>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 통신부문을 제외하고 나면, 1990년대에 들어서 부문별 비중 순위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순위상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분명한 추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980년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화학, 양곡 및 식료품, 섬유, 그리고 의류 및 신발부문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수송수단, 전기 및 통신부문에서의 비중증가가 다소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크지는 않지만 1990년대에 나타난 이같은 제조업에서의 변화는 인플레이션의 제거, 재정불균형 조정노력, 정부정책의 신뢰성회복, 이에 따른 경제 전반의 안정, 투자확대, 생산증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16] 다시 말해 1980년대에는 대외부채, 인플레이션, 재정불균형, 투자위축, 정부 정책의 非일관성 등이 집약되어 전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환경이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브라질 경제는 다시 회복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조업의 활동을 통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

16) 시장개방 또한 산업생산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브라질 경제의 내적 여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전체 경제의 안정성확보가 경제 전반의 활동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즉 안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경제풍토가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나쁜 기대가 형성될 때, 경제정책이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좋은 기대가 형성될 때, 적절한 경제정책은 높은 상승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여건에 따른 적절한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런 가운데 기본적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시장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게 된다.

〈표 3-18〉 브라질 산업: 1990년대 노동생산성(쌍빠울루)

(단위: 1992=100)

	산업활동지수(a)	고용지수(b)	생산성 (a/b)
1992	100.00	100.00	1.00
1993	108.56	96.29	1.13
1994	118.01	93.96	1.26
1995	120.02	92.57	1.30
1996	118.46	84.52	1.40
1997	124.13	81.15	1.53
1998	121.08	76.92	1.57
1999	115.82	72.24	1.60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Boletim(2000년 5월호)

위에서 투자와 관련해서 보았듯이, 1990년대 브라질에서 산업활동의 증가추세는 대규모의 투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표 3-18>에서는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부터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이미 앞에서 보았음에도 <표 3-18>의 고용지수는 증가되기보다는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반

대로 산업활동수준은 1995년까지 계속 증가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1980년대의 변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브라질 제조업 내에서 변화가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전에 브라질 경제전체의 변화에 직면하여 제조업에서 양적 조정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질적인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앞에서 지적된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는 노동절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형태로 제조업부문이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이를 브라질의 현실에 적용하여 설명한다면, 1980~92년까지 침체기간 중에 제조업부문의 투자부진 및 국내시장 보호로 국내제조업 시설의 낙후와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제조업 내부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제까지의 결과가 설명해주고 있다.

높은 생산성증가는 <표 3-19>에서도 보듯이, 산업부문별로도 확인될 수 있다. 1985~90년 사이 대부분의 부문에서 총요소생산성(TFP)의 감소현상이 발생된 반면, 1991~97년 사이에는 이전과는 정반대로 全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되는 부문으로 화학, 수송수단, 전기 및 통신, 금속부문을 들 수 있는데, 제조업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화학부문은 그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산업내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경제전체의 움직임 속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경제가 안정되면서 투자와 소비가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이 개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높은 보호장벽 속에서 안주하던 국내 제조업은 수요의 증대라는 활동촉진제와 함께, 경쟁의 심화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생존전략으로서 생산성 증대를 통한 효율성증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이

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공공부문이 맡아왔던 기간산업부문에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17]

〈표 3-19〉 브라질 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 변화(연평균)

(단위: %)

	1985~90	1991~97
비철금속(Minerais nao-Metalico)	-1.47	1.16
철강(Metalurgica)	-2.43	3.30
기계(Mecanica)	-0.88	1.35
전자 및 통신(Material Eletrico e de Comunicacoes)	-3.00	3.30
수송(Material de Transporte)	-6.35	5.04
제지(Papel e Papelao)	-4.16	3.19
고무(Borracha)	-3.01	2.77
화학(Quimica)	-6.39	5.04
제약(Farmaceutica e Veterinarios)	0.53	2.43
향수, 비누, 양초(Perfumaria, Saboes e Velas)	0.96	0.07
플라스틱(Produtos de Materias Plasticas)	-3.75	1.18
섬유(Textil)	-2.25	0.22
의류, 신발(Vestuario, Calcados, Artefatos de Tecidos)	-2.78	3.03
식료품(Alimenticia)	-3.17	2.52
음료수(Bebidas)	-0.98	1.30
담재(Fumo)	-1.99	0.27
평 균	-2.49	2.15

자료: Rossi Jr., and Perreira(1999)

17) 민영화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된 것으로, 우선적으로 공공기업들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적자를 재정에서 부담해오면서, 그동안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왔으며, 재정불균형의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재정측면에서 공공기업의 적자를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다. 둘째로, 공공기업의 낮은 생산성, 그리고 1980년대 장기적인 경제침체기간 동안에 투자되지 못함으로 인해, 시설의 낙후, 공급능력의 부족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더 이상의 재정을 통한 투자가 불가능한 점이 민영화를 촉진시키게 되었으며, 결국 민영화를 통해, 시설의 현대화, 신기술의 도입, 대규모 투자로 공급능력의 확대를 기대하면서, 기간산업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 또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생산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 1990년대 초반 이후의 브라질 산업부문에서의 현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나. 산업생산성과 시장개방 그리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앞 절에서 1980~90년대에 발생한 산업생산성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산업생산성이 변화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시장개방과 민영화를 주요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민영화 또한 상당부분이 국내기업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참여로 진행된 것을 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요인은 국내경제의 대외개방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시장개방이 산업생산성 향상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즉 의미있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들이 언급을 하고 있다(King & Levine, 1996; Bromstrom, Lipsey & Zejan, 1993; Summer & De long, 1992; Grossman & Helpman, 1990; Harrison, 1995). 종합하면, 생산성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것이 투자이다. 즉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설비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곧바로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재나 중간재 같은 재화들을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앞선 기술과 양질의 투입재를 도입하게 되어 국내기술수준을 향상하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입의 증가는 생산성 증대를 설명해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이다. 수입의 증가를 위해서는 대외부문의 균형 측면에서 당연히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며, 따라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대외교역을 증대하는 것은 일국 경제

의 생산성 증대와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Rossi Jr. & Ferreira(1999)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브라질에서 시장개방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1974~79년 사이에 높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지배하였던 시기로 대외부문의 균형을 유지하고 수입대체산업화 심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둘째는 1977~88년 사이로서, 관세가 대외교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가 되었다. 경제전체가 위기에 빠져들면서,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의 상승이 시작되었고, 이후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로 국내화폐가 고평가되면서, 관세정책이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셋째는 1988~94년 사이로서 시장개방이 시작되었던 시기이다. 이 기간 중 초반에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폭 관세를 낮추었고, 이어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서서히 낮추기 시작하였다. 네 번째는 1994년 헤알계획(Plano Real) 이후로, 이때도 역시 관세가 인하되었지만, 관세인하의 주목적은 국내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된 점이다.

시장보호 및 개방과 관련하여 관세가 주요 정책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위에서 알 수 있었고, <표 3-20>의 관세율 변화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전체 제조업 평균 명목관세율은 1985~88년 사이에 104.97%, 1989~93년에 34.00%, 그리고 1994~97년에 13.37%로 나타나고 있다.[18] 1985~88년 사이의 부문별 명목보호관세에 나타나는 특성은 일반적으로 담배, 의류, 섬유, 향수같은 소비재부문의 관세율이 아주 높고, 화학, 금속, 기계같은 자본재와 투입재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것이 1990년대 이전의 브라질 산업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는데, 다시 말해 수입대체산업화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국내수요를 국내에

18) 실질평균관세율은 같은 기간 중에, 즉 1985~88년 사이에 79.63%, 1989~93년에 41.49%, 그리고 1994~97년에 20.69%로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 자본재와 중간 투입재를 수입하여야 하는, 수입대체산업화의 구조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1988~93년 사이에는 관세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개방의 시작을 의미, 이로 인해 산업구조상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4~97년 사이에 명목관세율은 대부분의 부문에서 20% 미만을 기록하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는 시장개방에의 노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 외에도 인플레이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비주체들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수요가 증대된 결과로 국내공

〈표 3-20〉 브라질 산업부문별 명목관세율 변천

(단위: %)

	1985/88	1989/93	1994/97
비철금속 (Produtos Minerais nao-Metalicos)	87.70	18.97	7.18
철강 (Metalurgia)	65.15	21.33	12.41
기계 (Mecanica)	58.88	31.59	16.76
전자 및 통신 (Material Eletrico e de Comunicacoes)	91.73	34.69	18.31
수송 (Material de Transporte)	105.53	40.65	24.69
제지 (Papel e Papelao)	75.80	17.34	10.48
고무 (Borracha)	95.58	37.12	12.63
화학 (Quimica)	32.48	16.70	6.63
제약 (Farmaceutica e Veterinaria)	43.28	22.92	8.58
향수, 비누, 양초 (Perfumaria, Saboes e Velas)	158.83	44.40	8.58
프라스틱 (Produtos de Materiais Plasticos)	142.93	34.79	16.38
섬유 (Textil)	142.03	39.54	15.18
의류와 신발 (Vestuario, Calcados e Artefatos de Tecidos)	166.55	45.31	19.55
식료품 (Alimenticia)	77.50	23.51	12.53
음료수 (Bebida)	159.50	54.66	13.93
담배 (Fumo)	176.10	60.55	10.16
평 균	104.97	34.00	13.37

자료: Rossi Jr. & Ferreira(1999)

급능력부족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재상승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통해 공급측면을 해소하려는 의도 또한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브라질에서 시장개방은 1990년대에 들면서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시장개방과정에서 브라질 국내산업은 이전의 높은 보호막으로부터 노출되어 심한 국제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화와 수요의 증대는 기업활동을 자극하는 한 요인이 되었지만, 그 반면에 경쟁의 심화라는 또 다른 요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의 제조업부문은 국내시장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잃게 되고, 이전의 높은 수익성도 저하되었지만, 경쟁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의 증대라는 반대급부를 얻게 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19]

브라질 정부는 관세를 主도구로 활용하여 시장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1992년부터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80년대까지의 경제발전과정에서, 특히 기간산업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국영기업들은 1980년대 말에 와서는 대규모 적자로 정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었고, 또 1980년대 전기간 중 이들에 대한 투자의 부족으로, 시설 노후 및 기술적 낙후상태에 처해있었다. 따라서 이들 국영기업들은 사회적 수요에 대해 적절한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부문에 재원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정부로서는 기술적 낙후, 공급능력의 부족, 투자재원의 부족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민영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석유화학, 철강, 전력, 통신, 금융분야 등을

19) 생산성과 시장개방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Rossi Jr. & Ferreira(1999, pp. 19～24)는 종속변수로 총요소생산성을, 그리고 독립변수로서 관세율, 실질보호율, 수입, 수출을 놓고 추정해 본 결과, 수입만이 양(+)의 수치를, 그리고 의미있는 추정수치를 보여주었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음(-)의 수치를, 그리고 계수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브라질의 경우 또한 생산성과 수입 사이의, 더 나아가 시장개방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민영화하게 되었다.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국내 기업들이 이런 대규모 기간산업을 인수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기업의 민영화참여를 유도하여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외국기업들의 참여로 막대한 대외자본이 유입되면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까지도 하게 되었고, 기술적 현대화, 생산능력의 확대,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시장개방과 민영화가 브라질 산업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Mendonca de Barro와 Goldenstein(1998)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브라질 산업부문에서 3단계의 경쟁쇼크가 발생하였다. 첫 번째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극심한 국내적 불황상태에서 몇몇 기업들이 대외로 진출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쟁력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대외시장에 접근하면서, 이전에 국내시장 보호막 아래 안주해왔던 자신들의 경쟁력 부족을 인식하였고, 여기서 일부는 기술의 집적화와 질적향상을 위해 구조조정 노력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대세를 결정할 정도는 아닌, 아직 미약한 추세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아직 국내경제가 폐쇄상태에 있었으므로 항상 도피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쟁쇼크는 시장이 개방되면서 나타났다. 이는 수입개방이 구식생산모형을 가진 국내생산부문을 전체적으로 위협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구조 전환은 경제전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속도와 강도는 첫 번째와 비교하여 훨씬 강하였다. 이와 같이 강한 구조적 전환 추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약조건이 존재하였는데, 당시 초인플레이션은 경제의 활동을 위축시켜 투자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아직은 구식시스템 즉, 시장보호, 환율, 신용보조 등에 호소하는 것이 더욱 용이한 상황이었다. 세 번째는 1994년 헤알계획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안정화된 이후, 민영화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나타났다. 브라질의 국내경제상황이 충분한 유인력을 갖게 되면서, 외국기업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브라질 국내에서 경쟁은 치열해졌으며, 이 경쟁은 새로이 진입한 기업들과 이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는 아직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 적응을 강요하는 것이 되었다

이 같은 단계를 통해 변화는 가속화되고, 더욱 강화되었으며, 새로운 모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3단계의 경쟁쇼크는 브라질 산업구조에 혁신을 가져왔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Mendonca de Barro, Goldenstein, 1998). 첫째, 예전의 폐쇄적인 경쟁체제에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들이 국제적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 즉 기업전략적 측면이다. 둘째, 기업 내부적 운용환경 측면의 혁신으로, 종전의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시스템에서 차별화 — 질, 가변성, 다양성, 개성, 디자인, 상표—를 통한 경쟁력 고양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생산의 국내적 연관관계 측면으로, 종전의 초인플레이션하에서는 공급자의 비효율성이 가격으로 이전될 수 있었던 데 반해, 인플레이션이 제거되면서, 脫수직적 관계수립과 고객과 공급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수립이 요구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협조관계 또한 경쟁에 바탕을 두게 되어 경쟁력이 없는 공급자는 시장에서 축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브라질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구조와 생산성 측면에서 변화되었는데, 여기에는 브라질 경제의 전반적 변화, 즉 안정성회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이전의 낙후되고 보호되어 있던 산업부문이, 1990년대에 들어 시장개방과 함께, 국제경쟁에 직면하면서, 빠르게 변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제 4 장 브라질 최근 산업활동: 1997년 이후

1. 거시경제적 환경변화

1990년대 초반 이후, 강한 성장추세를 보여주던 브라질 경제는 1995년 멕시코 위기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였고, 그리고 1997년 이후,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9년 1월 마침내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었다. 이번 외환위기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요인은 막대한 대외부채이지만, 그 외에도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환율정책이었다. 따라서,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된 브라질은 1994년 헤알계획 이후 유지해오던 고정환율제를 1999년 1월 마침내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20]

이 외환위기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브라질경제의 취약점이 실물이나 금융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부문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1994년 헤알계획 이후 브라질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그 구조조정이 국내에서, 또 정부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적으로 정부부문에서 균형회복을 위해 재정긴축, 공무원고용보장제도 삭제,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시도하였고, 대규모 적자로 인해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던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했으며, 인플레이션 제거로 인해 드러나게 된 금융부문의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 더 나아가 국내물가억제를 위한

20) 1997년 이후 브라질 외환위기와 관련된 거시경제적 변화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윤택동, 이종걸(2000) 논문을 참조.

시장개방 확대 등을 시행하였다. 구조조정의 결과, 인플레이션의 정상화, 이에 따른 국가경제에서 불확실성의 제거, 따라서 경제전반에서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민간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외부채,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고정환율제와 시장개방정책이 결합되어 발생한 무역수지적자였다.[21] 대외부채로 인해 정부부문에서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부담은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게 되었고, 이것이 재정안정회복에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무역수지에서의 적자는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외화확보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대외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종합하여, 내부적 구조조정으로 브라질 경제의 체질은 강화되었으나, 외부적 요인이자 과거의 유산인 대외부채는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었고, 따라서 국제적 상황변화,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은 대외부문을 통해 브라질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초반 이후 강력한 성장추세를 보여주던 브라질 경제가 최근에 와서 성장추세에 변화를 보이게 된 이유는 결국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혼란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8~99년에 브라질 GDP 성장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외환위기를 맞은 여타 나라들에 비해,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적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에는 다시 4%대의 성장으로 회복하고 있다. 1997년 이후, 대외부문에 취약점을

21) 1994년까지 유지되어 오던 무역수지에서의 흑자는 1995년부터 적자로 전환, 누적되면서 브라질 경제에 부담을 주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수입의 상당부분이 생산성 증대와 연관된 자본재와 중간재였다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윤택동, 이종걸(2000), pp. 116~118).

갖고 있던 브라질 경제가 국제금융시장의 지속적인 혼란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활동을 보여준 것은 그동안의 구조조정 결과로, 브라질 경제가 내부적으로 건실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민영화과정에서 대규모 대외자본의 유입, 특히 1996~99년 사이에 막대한 대외자본의 유입(BNDES, 2001)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브라질 경제가 건실해졌음을 확실하게 증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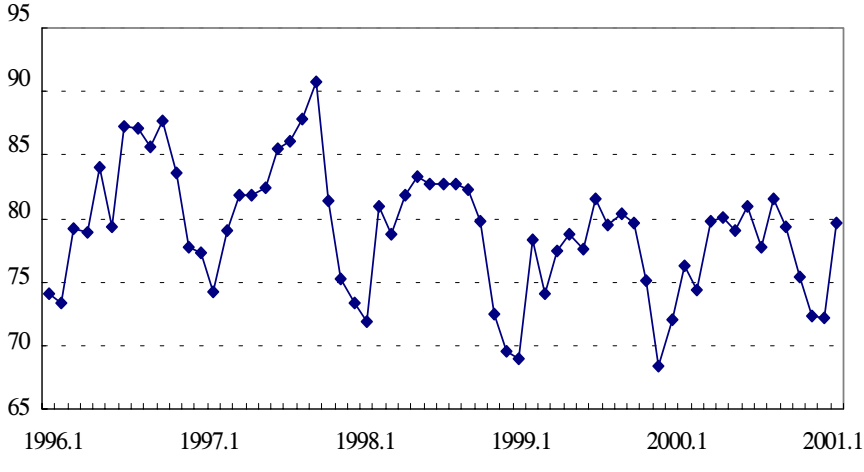
1997년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대외부문에서 위기에 직면한 브라질은, 1999년 1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기 이전까지, 주로 이자율 조정을 통해 대외부문 충격에 대처해왔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연평균 20%대 초반이었던 기준이자율이 외환위기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50%까지 상승하였고, 위기가 진정되면서, 바로 조정되어 낮추어지곤 하였다(윤택동, 2000). 이렇게 브라질 정부가 평가절하보다는 이자율을 통한 정책적 대응을 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약 15년간 지속되었던 초인플레이션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평가절하가 가져올 자국화폐에 대한 신뢰의 상실, 그리고 또 다시 달러가 가치기준으로 등장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브라질 정책수립자들이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평가절하보다는 이자율조정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오던 정부는, 마침내 막대한 대외부채의 원리금 상환과 이자지불, 지속된 무역적자 누적, 그리고 외환투기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고정환율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이를 받아들인 후, 나타난 안정적이고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라는 결과는 정책수립자들이 그동안 지나치게 초인플레이션 복귀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조금 일찍 변동환율제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리고 그랬을 경우 브라질 정부의 부담도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게 되었다. 어쨌든

1999년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승하였던 이자율은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1년 초반에는 10%대 중반까지 하락하였으나, 중반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하자 다시 상승하고 있다.

2. 최근의 산업활동: 거시경제적 환경변화가 미친 영향

1997년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브라질 산업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면, <그림 4-1>에 나타나듯이, 1997년에는 전년보다 산업활동수준이 다소 상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5년 멕시코위기의 충격이 산업활동에 반영된 후, 1996~97년에 들면서 다시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해 다소 활동수준이 떨어졌으며, 1999년에도 역시 하향추세를 보여주고

〈그림 4-1〉 전체산업활동지수



자료: IBGE

있다(표 3-16의 제조업 성장률을 참조). 2000년에는 1999년의 산업활동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2000년 사이에 산업활동수준은 소폭 하락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활동수준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산업부문이 외환위기로부터 아주 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외환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은 우선 브라질이 1980년대 장기간 경제침체기간을 지난 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내적으로 상당히 강한 성장추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이 강화되었다는 점, 또 브라질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즉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5% 전후를 기록하고 있어, 외환위기가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외의존도가 낮은 만큼 작게 되며, 또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클지라도 실물부문에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활동 역시, 이미 경제성장률에서도 보았듯이, 외환위기로 인해 심한 침체를 겪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겪었던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대비되는 점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발생하게 된 데는 양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제적 차이점이 지적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두 국가의 대외의존도의 수준차이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1997년의 산업활동에서의 계절성은 뚜렷한 최저점과 최고점을 갖는 이전의 계절성과 다소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1998~2000년 사이에는 계절성에서 이전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월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같지만, 2월 이후에 급속히 높아져, 3월부터 10월 사이의 생산활동수준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지적할 수 있다. 1997년 이전에는 8~10월 사이의 산업활동수준이

여타 기간의 생산활동수준에 비해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최근 3년에는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 최저점을 제외한 다른 기간의 생산활동수준이 비슷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1997년 이후 1999년까지 지속된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브라질 산업부문에서 계절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어떤 내부적 변화가 발생한 것인지는 좀더 시간을 갖고, 향후 산업활동자료를 토대로 분석되어야 할 점이다.

최근 생산성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7년 이후,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라질 경제의 중심인 쌍빠울루주의 산업활동수준은 1998~99년 사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에서 감소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다.

〈표 4-1〉 브라질 산업활동지수(쌍빠울루)

(단위: 1992=100)

	산업활동지수(a)	고용지수(b)	생산성(a/b)
1997	124.12	81.15	1.53
1998	121.33	76.92	1.57
1999	115.85	72.24	1.60
2000	123.28	72.94	1.69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Boletim(2000년 9월호)

이는 앞 기간에서 분석되었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노동절약적인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고용에서의 문제점은 브라질이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Morreira(1995)가 지적하였듯이, 브라질은 산업화과정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산업부문에서의 고용창출능

력이 상당히 모자란다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교육받고 숙련된 전문기술 인력보다는 낮은 수준의 노동력이 넘치는 브라질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설치하는 것은 임금격차 및 실업의 해소, 국내수요시장형성, 국내산업촉진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최근에 나타나는 고용수준의 감소는 기업들이 시장개방으로 인해 심화된 경쟁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현상이라 하겠다. 즉, 1990년대에 시장개방과 함께 발생한 현대화 및 효율성증대 노력에서 발생된 현상이며, 이로 인한 산업조직적 변화는 브라질의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중소기업진흥청(SEBRAE)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노동력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 영세기업의 육성에 관심을 두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Bonelli, 2001). 실업 및 고용문제를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할 때, 브라질 산업부문에서 생산성 개선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브라질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 5 장 결론: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에서 얻는 시사점, 그리고 한국의 접근방향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브라질 산업활동은 극단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1980년대에 초인플레이션, 막대한 대외부채, 심각한 재정적자 등으로 국가경제가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 있을 때, 경제활동은 침체되었고, 이런 가운데 산업부문의 생산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통한 높은 보호장벽 속에서 브라질 기업들은 전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국내시장에 안주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던 요인들이 제거됨에 따라 경제의 안정성 회복과 함께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게 되었고, 또 국내시장이 개방되면서, 경쟁도 치열해졌으며, 산업부문에서 생산성 증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산업부문에서의 구조변화가 1990년대에 발생되는 가운데, 브라질 산업부문은 생산활동수준과 생산성 측면에서 1980년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관심을 끄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경제의 안정성과 산업생산활동 및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지적할 수 있는데, 국가경제의 혼란 내지 불안정은 경제활동을 침체시키고, 그 반대로 경제의 안정성회복은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기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브라질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으며,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원인들 중의 하나가 정부의 재정적자였다.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나온 막대한 적자는 단순히

부적절하고 비일관적인 경제정책의 문제만은 아니었으며, 정치적인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였다.[22] 이러한 정치적 영향은 브라질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구조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복합된 영향에 의해 발생된 재정적자와 이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은 국가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불확실성을 점점 확대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기업가들은 투자를 자제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기업활동을 하더라도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활동은 가능한 한 줄이고, 단기적 활동에 치중하게 된다. 결국, 경제가 점차 불확실해지면서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국가경제전체에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경제 및 산업생산활동은 회복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1990년대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경제의 안정성 확보가 경제활동과 산업생산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경제안정을 기본바탕으로 시장은 작동한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재정 및 금융정책이 국가경제개발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재정, 금융정책의 최우선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22) 1993년 브라질 재무부가 발표한 'Fernando Henrique Cardoso' 계획에는 정치인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입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세출안을 집어넣기 위해 세입계산을 인위적으로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팽창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영향이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Ministerio da Fazenda, 1993). 또 사르네이정부 때, 대통령임기를 늘리기 위해 취했던 인기영합적이고, 무책임한 조치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Baer, 1996, pp. 172~73).

두 번째로 정부와 시장의 보완적 측면, 즉 일반적으로 정부와 시장은 대립적 개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달리 보면 보완적인 측면 또한 강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역할을 줄이고, 이로 인해 시장에 비해 비효율적인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감소된다는 것이 정부개입을 비판하는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와는 반대로 시장의 지배는 독점과 부의 분배, 기간산업 개발 등에서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정부와 시장이 서로 협조를 하고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브라질 경제에서 좀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문은 정부부문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을 무시한 채, 적절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지도 못하고, 또 시행에서 일관성을 잃자,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실패와 관련하여 정부는 시장을 탓하고, 시장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990년대 시행된 안정화정책은 무엇보다도 수립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통해 시장의 믿음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서,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협조를 통해 정부정책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는 활성화되고 생산성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대하였던 정부의 비중을 줄여나갔고, 시장의 역할이 주축이 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정부역할을 지켜나가는 원칙이 국가경제를 오히려 더욱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부와 시장은 서로가 파트너로서 상대를 인정하고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정부와 시장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브라질의 경험에서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논의될 점은 시장개방과 산업활동 사이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수준으로 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보호정책 없이, 개도국이 유치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사실이다. 그러나 비효율적으로 재원을 낭비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굳이 육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개도국들이 자국에 유리한 부문들을 특화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주장은, 이미 종속이론에서 주장되었듯이, 교역조건의 악화가 분명하게 발생되면서, 개도국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1980~90년대 브라질의 산업활동과 시장보호 및 시장개방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브라질의 경우에는 1980년대 지나친 시장보호정책이 유치산업을 육성,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가들을 국내시장에 안주하게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 반면, 1990년대 시장개방은 국내시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기업가들이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상황변화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장개방이 브라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국가경제의 대외적 저항력을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보호만이 국내유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화된 시장보호와 시장개방이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브라질 산업활동에는 뚜렷한 계절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1년 중 2월에 산업활동수준이 최저수준에 도달하고, 8월이나 10월에 최고수준에 도달하는 분명한 계절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수준차이도 상당히 큰 편이다. 이러한 계절성은 남반구 그리고 열대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기후적 특성과 크리스마스와 카니발이라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이 어울러져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절성은 단기적으로 변화되기 어

려운 요인이나, 장기적으로 브라질은 경제활동수준 자체를 높이기 위해 계절성 극복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절성을 통해서도, 경제활동은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복합된 현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다섯째, 브라질은 자본주의 국가로서는 쉽지 않은 가격동결, 예금인출 동결 같은 반시장적이고, 반정통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었고, 시장은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고, 산업활동은 이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반정통적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브라질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또한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1990년대에 들어 브라질은 적극적으로 산업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생산성 개선은 새로운 선진기술 외에도 기업의 경영 및 생산관리기술을 도입하는 등, 산업조직적 측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브라질은 비행기산업과 신발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부터 전통적인 低기술산업까지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통적 산업부문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아직도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전체적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영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브라질 내 각 지역이 앞다투어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1990년대에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브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보여주는 특징 중의 하나가 고용창출

능력의 부족이다. 여타 발전국들과 비교할 때, 브라질은 산업부문의 노동력 흡수능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화 모델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가전체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의 선택은 소수의 교육받은 숙련기술노동력의 임금을 더욱 상승하게 하였고, 그리고 다수 일반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력 공급초과로 인해 낮아져,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산업화 이전의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즉 기존의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용문제에 직면하여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시도하고 있는 노력들 중의 하나가 노동력 흡수율이 높은 중소, 영세기업들을 육성하려는 시도이다. 결국 산업화란 국가 상황에 맞춰서 계획되고 전략이 선택되어야 하며, 따라서 당연히 상황이 변화할 경우 계획과 전략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브라질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향을 고려하는 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브라질이란 국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중남미가 지리적으로 지구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보니,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나 러시아에 비해서도 낮으며, 또 중남미를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 브라질은 그 지역내의 조금 힘있는 한 국가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멕시코와 그 주변국가들로 구성된 중미지역은 멕시코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참여하면서, 수출입의 80% 이상이 미국과의 교역일 정도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미는 북미경제의 일부 내지는 북미경제에 강하게 연결된 지역이다. 이런 중미와는 달리 남미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북미

뿐만 아니라 유럽과도 적절한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역이다. 따라서 중남미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왔던 우리의 시각을 좀더 세분화하여 중미와 남미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중미는 NAFTA를 겨냥한 중간거점지대로 접근전략을 취하고, 남미는 자체시장을 겨냥한 접근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남미지역만을 고려할 때, 1997년 GDP를 기준으로 브라질은 가장 근접 국가인 아르헨티나에 비해 약 2.5배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타 10여개 국가들에 비해서는 1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미에서 브라질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정치적으로도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미지역에서 중심핵은 브라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남미지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교류에서 향후 한국이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이 있다.

첫째로, 단순히 한국제품을 판매하고 브라질의 제품을 사오는 시장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 들어 브라질 산업부문은 급속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현대화되어 가고 있고, 산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각 정부부처들에 흩어져 있는 수출관련 부문들을 한 부처에서 통괄할 수 있게 정비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노력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로 나타나게 되며, 향후 국제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할 분야도 당연히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점은, 현재 브라질은 생산성개선을 추진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에 대해 현재와 같이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영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예로서, 1994년 헤알계획 이후, 드러난 금융부문부실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브라질은 처음에 외국자본에게 새로운 은행설립까지도

허용하였으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은행설립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모든 국가들이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자신이 필요한 수준까지는 외국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당연히 진입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제시장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와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브라질을 판매 및 구매시장으로서만 접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현지에 진출하여 현지화하고 이를 통해 현지에서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점이다. 현재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려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 현지화 하려는 기업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전략은 정확하게 부응한다고 하겠다.

둘째로, 그러면 브라질에 진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한국의 기술수준으로 충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란 점이다. 선진국에 저가제품으로 수출되는 것이 브라질에는 적절한 수준의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오히려 브라질에 적합한 기술수준이 될 수 있다. 현재 브라질은 부의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해 많은 하층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소득이 증대될 경우 늘어나게 될 수요는 생필품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고급품이 아니라 당연히 중·저가품이 된다는 점이다. 결국 포화된 한국시장에 비해, 중·저가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커다란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또 브라질 시장은 여타시장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높고 개발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넓다 보니, 일부 선진유통부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생산, 유통, 판매에서 더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 브라질에 진출할 경우, 여타 남미국가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남미국가들의 상

황 또한 브라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결국 브라질이 남미에서 가장 공업화된 국가이며, 여타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브라질 시장을 포함한 남미지역전체가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시장이라는 점이다.

셋째로, 브라질에 진출할 경우,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적절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이 1970년대 산업체학교를 운용했던 것처럼, 고용인들에 대한 교육투자 및 훈련을 통해 숙련된 노동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경우, 사회적으로 더욱 높은 평가와 좋은 이미지를 확보하면서, 시장에 대한 침투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으며, 브라질 정부로부터도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브라질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성장전략은 모두에게 윈-윈 게임이 된다. 브라질 지식인들은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국가경제발전도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교육을 통한 점진적 발전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적 발전전략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넷째, 한국제품의 단순한 판매시장 측면으로 접근할 경우, 브라질의 지리적 위치와 산업활동에서의 계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반구에 위치한 브라질은 한국과 유럽, 북미와 반대되는 계절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계절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수요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일년 중, 브라질에서 경기가 절정에 오르는 시기는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이다. 따라서 이때에 맞추어 생산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8월 내지 10월에 산업생산이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크리스마스는 한국, 북미, 유럽처럼 겨울이 아니라 한여름이므로 겨울상품이 아니라 여름상품이 소비된다. 따라서 브라질 시장은 한국이 수

출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역, 즉 기업들이 생산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다. 요약하여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브라질의 계절적 특성, 즉 2월에는 생산이 아주 낮은 반면,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는 기간이고, 8월에서 10월에 생산이 절정에 달하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이 소비되는 계절은 여름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근까지 한국은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계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브라질에 의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국적 기질을 갖고 있는 브라질은 단기적 손실은 감수할지라도, 장기적인 손실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줄 경우, 향후 한국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교역규모는 한국전체 교역에 비할 때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양국사이의 교역에서 마찰이 생길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는 대외의존도가 15%에 불과한 브라질이라기보다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다. 한국은 앞으로 대규모로 개발되고, 진출가능성이 높은 브라질에 대해, 또 한국수출의 다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 나쁜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상호주의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결국 한국측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하여 미리 제공해주고, 브라질이 한국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브라질은 이렇게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나라이다.

참고문헌

윤택동. 2000. 12.「최근 발생한 브라질 외환위기의 특징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라틴아메리카 동계학회.

_____. 2001.「브라질 경제의 한 특성: 사회, 경제적 불평등」.『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4, no.1.

_____. 이종걸. 2000.「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재검토와 브라질 외환위기와의 비교」.『국제지역연구』, vol. 4, no.3.

BANCO CENTRAL DO BRASIL. Boletim do Banco Central do Brasil. varios numeros.

BAER, Werner. 1996. *A Economia brasileira*. São Paulo: Nobel.

Barro, Ricardo P., Mendonça, Rosane S.P. 1993. "Geração e Reprodução da Desigualdade de Renda no Brasil." *ANPEC, Encontro Nacional de Economia*, Anais do XXI, vol. 2. Belo Horizonte.

_____, Henriques, R. 2000. "A Estabilidade inaceitavel: Desigualdade e Pobreza no Brasil." In: Henriques, Ricardo (*org*), *Desigualdade e pobreza no Brasil*. Rio de Janeiro: IPEA.

BATISTA, Jorge Chami. 1987. "A Estratégia de Ajustamento Externo do Segundo Plan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Revista de Economia Política*, vol. 7, no. 2.

BATISTA JR., Paulo Nogueira. 1990. "Déficit e Financiamento do Setor Publico Brasileiro: 1983-88." *Revista de Economia Política*, vol. 10, no. 4.

_____. 1988. "Fluxo Financeiros Internacionais para o Brasil desde o Final da década de 1960." In: BATISTA JR., Paulo Nogueira (org.), *Novos Ensaios sobre o Setor Externo da Economia Brasileira*. Rio de Janeiro: FGV.

BIER, Amaury G. ; PAULANI, Leda ; MESSENBERG, Roberto. 1987. *Heterodoxo e o Pós-moderno: O cruzado em conflito*. São Paulo: Paz e Terra.

BNDES. Privatizacao, www.bndes.gov.br.

BONELLI, Regis. 2001. *Política de Competitividade Industrial no Brasil-1995-2000*. Rio de Janeiro: IPEA. (Texto para Discussão, 810).

_____. GONÇALVES, Robson. 1999. *Padrões de Desenvolvimento Industrial no Brasil-1980-1995*. Rio de Janeiro: IPEA. (Texto para Discussão, 645).

_____. 1998. *Para onde vai a Estrutura Industrial Brasileira?* Rio de Janeiro: IPEA. (Texto para Discussão, 540).

BromstroM, M., Lipsey, R., e Zejan, M. feb. 1996. *Is Fixed Investment the Key to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CARNEIRO, Dionísio Dias. 1992. "Crise e Esperança: 1974-80." In: ABREU, Marcelo P.(org.), *A Ordem do Progresso: 100 anos de Política econômica republicana-1889-1989*. Rio de Janeiro: Ed. Campus.

_____; MODIANO, Eduardo M. 1992. "Ajuste Externo e desequilíbrio Externo: 1980-84." In: ABREU, Marcelo P. (org.), *A Ordem do Progresso: 100 anos de Política econômica republicana-1889-1989*. Rio de Janeiro: Ed. Campus.

CONJUNTURA ECONÔMICA. Rio de Janeiro, FGV, vários números.

De LONG, J.B., SUMMERS, Lawrence. 1992. *Equipmen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Brooking Paper on Economic Activity. pp.157-211.

GROSSMAN, G., HELPMAN, E. 1990. "Comparative Advantage and Long-run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0, no. 4.

HAGUENAUER, L., BAHIA, L.D., CASTRO, P.F., RIBEIRO, M.B. 2001. *Evolução das Cadeias Produtivas Brasileiras na Década de 90. Brasília*. Brasilia: IPEA. (Texto para Discussão, 786).

HARRISON, A. 1995. *Openness and Growth: a time-series, cross-country analysis for developing countries*. NBER Working Paper 5221.

Harvey, Andrew C. 1993. *Time Series Models*. Harvestes Wheatsheaf.

IBGE. Indicadores IBGE: Pesquisa Industrial Mensal. 1997, 2001. www.ibge.gov.br.

King, R.G., Levine, R. aug. 1993. *Finance and Growth: Schumpeter might be righ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endonça de Barros, José Roberto, Goldenstein, Lídia. 1998. *A Crise Asiática e a Estabilização no Brasil*. Minitério da Fazenda.

Minstério da Fazenda. 1994. "Plano Fernando Henrique Cardoso." 1993, republicado na *Revista de Economia Politica*, vol. 14, no. 2.

MODIANO, Eduardo M.. 1992 "A Opera dos Três Cruzados: 1985-1989." In: Abreu, Marcelo P. (org.), *A Ordem do Progresso: 100 anos de Política econômica republicana-1889-1989*. Rio de Janeiro: Ed. Campus.

MOREIRA, Maurício Mesquita. 1995. *Industrialization, Trade and Market failure: the Rol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Brasil and South Korea*. New York: ST Martin's Press.

PACK, Howard. 2000. "Industrial Policy: Growth Elixir or Poison?"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15, no. 1.

RESENDE, André Lara. 1989. "Da Inflação Crônica a Hiperinflacao: Observações sobre Quadro Recente." In: REGO, José Márcio (org), *Aceleração Recente da Inflação: a Teoria da Inflação Inercial Reexaminada*.

ROSSI Jr., Jose Luiz, FERREIRA, Pedro Cavalcanti. 1999. *Evolucao da Produtividade Industrial Brasileira e Abertura Comercial*. Rio de Janeiro: IPEA. (Texto para Discussao, 651).

SUZIGAN, Wilson. 1991. *A Industria Brasileira apos uma Decada de Estagnação: Questões para Política Industrial*. Instituto de Economia, Unicamp.

TODARO, Michael P. 1985.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3ed*, 이근식 외 역, 서울: 비봉사.

Yoon, Taek Dong. 1999. *Desenvolvimento Economico Comparado: Coreia do Sul e Brasil*. Porto Alegre: UFRGS.

부 록

〈참조 1〉 브라질 제조업 부문별 비중에 따른 구분: 1980년대

(단위: %)

	1980년		1985년		1990년	
	부문	비중	부문	비중	부문	비중
1	가 죽	0.49	가 죽	0.6	가 죽	0.53
2	담 배	0.55	담 배	0.6	딤 배	0.61
3	향 수	0.82	향 수	0.84	향 수	0.79
4	음 료	1.07	음 료	1.06	가 구	0.99
5	제 약	1.11	제 약	1.15	목 재	1.01
6	가 구	1.49	가 구	1.16	음 료	1.15
7	기 타	1.49	목 재	1.19	제 약	1.18
8	고 무	1.52	인 쇄	1.32	플 라 스 틱	1.65
9	인 쇄	1.63	고 무	1.66	고 무	1.67
10	목 재	2.05	기 타	1.8	기 타	2.28
11	플 라 스 틱	2.05	플 라 스 틱	1.92	인 쇄	2.39
12	제 지	2.72	제 지	2.81	제 지	2.82
13	의 류	3.9	비 철 금 속	3.02	비 철 금 속	2.92
14	비 철 금 속	4.25	의 류	4.34	의 류	4.09
15	전 기	5.26	섬 유	5.77	섬 유	5.23
16	섬 유	6.5	전 기	5.8	전 기	5.38
17	기 계	7.69	기 계	6.85	기 계	5.99
18	수 송 기 계	7.94	수 송 기 계	7.43	수 송 기 계	6.45
19	금 속	13.09	금 속	13.99	금 속	13.12
20	식 료 품	14.05	식 료 품	15.81	식 료 품	18.81
21	화 학	19.52	화 학	20.88	화 학	20.92

자료: <표 3-14>를 재구성함.

〈참조 2〉 브라질 제조업 부문별 비중에 따른 구분: 1990년대

(단위: %)

	1990~92	1993~96
전체산업	100	100
광업	5.25	5.15
제조업	94.99	95.3
담배	0.75	0.71
제약	1.11	1.07
향수, 비누, 양초	1.11	1.12
음료	1.58	1.67
고무	1.78	1.79
플라스틱	1.81	1.8
의류, 신발	2.92	2.47
비철금속	2.98	2.83
제지	3.12	3.05
섬유	5.31	4.59
기타	5.85	6.1
전기 및 통신	5.97	6.3
기계	6.05	6.76
수송기계	6.43	7.71
금속	12.9	13.06
식료품	16.97	16.56
화학	18.36	17.71

자료: <표 3-17>을 재구성함.

Executive Summary

Structural Changes in Brazilian Industry in the 1980s and 1990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Brazil

Taek Dong Yoon

All through the 1980s, the Brazilian economy suffered from a foreign debt crisis, high inflation, fiscal imbalance, and dwindling investment expenditure. Another problem, no less important, were inept and inconsistent government policies.

Increasing uncertainties triggered by these factors were responsible for the poor performance of Brazilian industries during the 1980s. However, from the early 1990s, the Brazilian manufacturing sector began to show remarkable growth and increases in productivity.

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the factors which brought these changes to the Brazilian manufacturing sector, especially the productivity increas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endency, seasonality and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1980s and 1990s. We argue that opening the domestic market to foreign competition and recovering the stability of the Brazilian economy through the Real Plan have contributed most to the strong growth and increasing productivity of the 1990s.

KIEP 발간자료 목록(1997~2001. 12)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鄭銀淑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 방향	吳勇錫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李榮洙・徐煥周
00-05	日・北 經濟協力의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朴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化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金正浣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楊平燮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의 評價와 向後課題	金讚浣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金昌男・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高在模・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李忠烈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위기의 원인과 전망	鄭基虎・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沈義燮・李光勛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澤東
01-08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朴明浩
01-09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전략	鮮于鍵
01-10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韓鍾萬・成源鏞
01-11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李奎榮
01-12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認識과 東北亞 經濟統合 可能性	安錫敎・許興鎬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 정책연구

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王允鍾
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王允鍾 編著
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碍要因과 促進方案 金準東
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崔秀雄
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唆點 金鍾範
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李鍾華・李晟鳳
97-07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王允鍾・羅秀燁
97-08 中國經濟의 淨上과 韓國의 對應 李昌在 外
97-09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金南斗 外
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趙明哲
97-11 韓・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鄭余泉
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金元鎬 外
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金寬澔 外
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趙顯埈
98-0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層報告[1] 張亨壽・王允鍾
98-02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 李章揆 外
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王允鍾・金琮根
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權泰亨 外
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成克濟
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王允鍾 編
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柳在元・李弘求
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李昌在 外

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李晟鳳・李炯根
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李晟鳳 外
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張亨壽・李昌在・朴映坤
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崔秀雄
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展開方向 徐錫興
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Byung-il Choi・Eun-Mee Kim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張亨壽・元容杰
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鄭仁敎
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硏究 金寬澔・李性美
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尹昌仁
98-19 中・東區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현황과 전망 鄭余泉・崔秉熙・韓貞澈
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투자환경 趙明哲・洪翼杓
98-2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全載旭・崔義炫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曺琮和 編
99-02 韓・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金元鎬 編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金博洙・王允鍾・申東和・李炯根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王允鍾・鄭在完・金琮根・李鴻培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曺琮和 編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평가 安炯徒 編著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1]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총괄편> 李昌在 外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2]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鄭仁敎 外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金益洙
99-10 동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崔秀雄・朴相守
99-11 IMF 체제하의 한국경제Ⅱ 黃祥仁・王允鍾・李晟鳳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3]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李晟鳳 外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4]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王允鍾 外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蔡 旭・金準東・宋有哲・尹美京・徐暢培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金準東・姜仁洙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鄭余泉
00-04 WTO 뉴라운드 工産品協商의 시나리오별 實證分析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李明憲・先文培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金準東・李長榮・李漢熀・金龍奎・崔重熹・許 琮・李漳源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鄕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의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鄭仁敎・李景姬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金準東・蔡 旭・梁俊晳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趙明哲・權 栗・李哲元・金恩志
00-10 國際金融制度 改編의 주요쟁점연구 金世稙・楊斗鏞・王允鍾・黃祥仁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尹昌仁 外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趙明哲・洪翼杓
00-13 WTO 뉴라운드協商의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蔡 旭・崔洛均
00-14 선진국 주요 環境措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換・庾相喜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李鍾華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宋有哲・朴芝賢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南相烈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黃祥仁・金寅培・辛仁錫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01-05 APEC 무역원활화와의 경제적 효과 金尙謙・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曺琮和・金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晳・金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朴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朴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 旭・徐暢培

■ 조사분석

97-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朴相守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鄭在完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鄭在完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 部門 進出現況 李哲元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徐承源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鄭在完・權耿德
97-07 CIS 經濟統合의 進出現況과 展望 李聖揆・崔秉熙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金完仲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崔義炫
97-10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硏究 蔡 旭
97-11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美國의「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李鎬生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權 栗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洪翼杓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金琮根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朴月羅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 投資制度 李炯根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羅成燮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전망 鄭仁敎・李昌在 編著
98-03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趙潤濟・金鍾燮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鄭成哲・李明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과 對APEC 정책 李載裕・李載榮
98-08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朴泰鎬・文宇植・白珍鉉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孫正植・韓弘烈

98-10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 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蔡 旭・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金裕粲・李晟鳳
99-01 OECD연구시리즈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晟鳳・李炯根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金琮根
00-01 透明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朴映坤・金于珍・羅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梁俊哲・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金元鎬・姜文盛・羅秀燁・金眞梧
00-05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張亨壽・朴映坤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鄭在完
01-02 아프리카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방안 朴英鎬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孫讚鉉・尹眞那
01-04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宋有哲・朴芝賢
01-05 韓・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金良姬・金鍾杰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鄭余泉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權奇洙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權 栗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金眞梧
01-10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李哲元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尹美京・李性美
01-12 北韓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南北협력 방안 趙明哲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洪翼杓

尹澤東

브라질 Rio Grande do Sul 연방대학교 경제학박사
브라질 경제기획부 산하 경제정책연구소(IPEA) 연구원
브라질 PUC-RS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사(現, E-mail: taekdy@hanmail.net)

著書 및 論文

『비교경제발전: 한국과 브라질』(1999)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재검토와 브라질 외환위기와의 비교』(2000) 외

지역연구회시리즈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2001년 12월 20일 인쇄
2001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硏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 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6044-3 94320
89-322-6015-X(세트)

정가 7,000원

KIEP's Official Pool of Regional Experts Series 01-07

Structural Changes in Brazilian Industry in the 1980s and 1990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Brazil

Taek Dong Yoon

1980년대의 브라질 경제는 대외부채, 고인플레이션, 재정불균형 등으로 인해 큰 혼란 속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정부정책의 非適實性과 非一貫性이 이같은 혼란을 야기시킨 주요인이었다. 위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브라질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고, 브라질 산업 또한 높은 국내시장보호정책 속에서 안주하면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 브라질 산업부문,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강한 성장추세와 함께 산업생산성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부문에서의 구조적 변화 분석을 통해 한국과 브라질의 바람직한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94320
9 788932 260440
ISBN 89-322-6044-3
89-322-6015-X(세트)
정가 7,000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FAX: 3460-1144